

‘서울형 택시’ 개발 무산... 市 믿었던 기업만 헛고생

‘런던 택시’처럼 관광자원 목표 2년전 사업 추진, 1년만에 중단 개발 나선 현대차 시간·비용 낭비 서울시 “예산 부족해 진행 못해”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와 함께 도입을 추진했던 ‘서울형 전용 택시 개발’이 무산됐다. 서울시의 전행정 탓에 애꿎은 기업만 선행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형 택시 프로젝트’는 현재 관련 정책 추진이 중단된 것은 물론, 내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서울형 택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시정 4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시 택시 전용 모델 도입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제조사(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택시 전용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영국의 ‘런던 택시’처럼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전용 모델을 앞세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현대차에 요구했던 택시 전용 모델은 세단형인 일반 택시와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영국 런던 택시를 벤치마킹했다. 택시 전용 모델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한 소형 미니밴 형태다. 승하차 편의를 위해 2열 ‘슬라이딩 도어’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약대도 설치하도록 했다.

일본 역시 일찌감치 영국의 런던 택시를 벤치마킹해 전용 모델인 ‘JPN 택시’를 도입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쿄도가 토요타에 의뢰해 개발을 마쳤고, 약 2만 8000대 도입을 목표로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역시 현대차와 개발 협의를 마쳤다. 2021년 양산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삼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2019년 당시 ‘시정 4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영국 런던 택시를 벤치마킹해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한정적인 택시 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유니버설한 디자인 택시’를 추진했다”면서도 “새 사업을 추진할 여력과 예산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전용 모델 도입은 제조사(신차개발 비용 절감)와 지자체(시민 서비스 개선), 택시사업자와 운전자(차량 가격 인하)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모델이다.

실제 현대차는 서울시 의뢰에 따라 실제 선행개발에 필요한 시장 조사를 마쳤고, 일본 토요타의 JPN 택시의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쏘나타 = 택시’라는 편견을 벗어날 기회로도 삼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가 의뢰해 택시 전용 모델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모델 개발을 추진한 적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박은평 기자 pepe@



코스피지수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세계적 대확산 여파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0.31포인트(2.42%) 하락한 2839.01에 마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스피 2900 무너져... 오미크론에 시장 패닉

2.4%↓ 연중 최저치... 코스닥 폭락
주요지수도 줄하락... 채권은 강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가 한국 등 아시아 증시를 집어삼켰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국의 긴축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유가 변동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당분간 바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4·11면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0.31포인트(-2.42%) 내린 2839.01로 장을 마쳤

다. 증가 기준으로 올해 작전 최저치인 지난날 6일 2908.31보다 낮은 연중 최저점이자, 지난해 12월 29일(2820.5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중 한때 2822.73까지 밀리며 장중 연저점도 새로 썼다.

개인이 735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67억 원, 6364억 원어치 ‘팔자’에 나서면서 무너져 내렸다.

국내 증시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11.04% 상승한 23.23을 기록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38% 하락한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90개의 주가가 내렸다. 코스닥지수도

2.69% 떨어진 965.63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니케이225지수(-1.63%), 홍콩 항셱지수(-1.58%), 중국상하이종합지수(0.03%) 등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잿빛이 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10원 떨어진 118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미크론이 미국에 상륙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가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0.045%포인트 하락한 1.799%를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 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올 6000가구, 내년 3.8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완료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의 불씨를 틔웠다. 공공에 이어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최초로 시행해 연내 6000가구를 분양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모두 완료해 이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내 집 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총 2500가구 규모로, 사업지는 오산 세교2지구와 평택 고덕·부산 장안지구 등 3개 지구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 100㎡의 대형 면적도 230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연내 6000가구를, 내년에 추가로

3만8000가구를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수도권 한 해 분양 물량의 절반 수준인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택지 다수가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있어 서울 등 도심 접근이 용이해 입지적 장점이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억~4억 원대에 분양한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1만9500가구)과 고양 창릉(3만8000가구)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발표 후 2년 6개월 만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수한 입지에 민간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융회사 ‘고객정보’로 새 먹거리 찾는다

신한·KB, 데이터 업무 신청
자산관리·상권분석 등 채비

금융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개막했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금융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를 신청했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상 겸영업무는 사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앞서 작년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건을 수리했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 업무는 익명·가명 데이터를, 이번엔 KB국민은행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은 실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착하면 자산관리가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산 및 지출관리,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당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 익명, 통계 등 빅데이터로 변환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 계획을 세웠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디지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디지털 사업 예산을 쓰고 싶은 만큼 쓰라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도 영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디지털 분야 임원들을 만나 내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배달앱 ‘뽕겨요’를 통해 데이터 사업을 고도화한다. 배달과 금융이라는 이중산업 간 결합으로 모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하면 다른 금융사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범근 기자 nova@

소비재 기업 20년 장수 CEO 비결은 '성·소·통'

〈성과·소통·통찰력〉

박준 유임...17년 농심 부회장
차석용 LG생건 부회장 25년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22년
“스테디셀러 이해 높아” 공통점

통업계에서 실적 부진이나 조직 내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수장직을 내려 놓는 CEO들이 적지 않은 상황과 대비된다. 순혈주의가 사라지고 외부인사 수혈이 잇따르는 유통업계와 달리 식품, 화장품, 패션 등 소비재 기업은 10년 이상 전문경영인의 길을 걸어온 장수 CEO가 많다.

최장수 CEO는 단연 차석용(가운데·68) LG생활건강 부회장이다. 차 부회장은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전문경영인으로는 최초로 부회장에 올랐다. 차 부회장은 올해로 만 25년째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대표이사에게 오른 지도 16년이다. 차 부회장은 1996년 한국P&G 사업본부 대표로 CEO를 시작해 해태제과 사장을 거쳐 2005년 LG생활건강에 등지를 튼 후 66분기 연속 영업이익 성장 신화를 썼다. 그가 부임한 이후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은 40배 이상 성장했다. 그의 놀라운 경영능력은 ‘차석용 매직’이라는 용

어로 불릴 정도다. 하이트진로음료를 이끌고 있는 조운호(오른쪽·59) 대표는 히트상품 제조기로 유명하다. 웅진식품에서 ‘초록매실’, ‘아침햇살’에 이어 ‘하늘보리’까지 잇단 히트상품을 쏟아낸 조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또 한번 저력을 확인시켰다. ‘하늘보리’가 최강자 자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 오던 보리차 시장에 하이트진로음료에 합류한 조 대표가 ‘블랙보리’를 내세워 진정한 웅진식품을 위협하는 2위 브랜드를 탄생시킨 것이다. 조 대표는 1999년 웅진식품 CEO에 오른 후 22년간 CEO 직함을 달고 있다.

(61) 부회장, 하이트진로 김인규(59) 대표, 오규식(63) LF 부회장 등도 10년 이상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처럼 소비재 기업에 장수 CEO가 많은 것은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이면서도 스테디셀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월 1일자로 농심 박준(사진 왼쪽·73) 부회장이 대표이사에 유임됐다. 박 부회장은 2005년 농심의 국제사업 총괄 사장에 오르면서 전문경영인의 길에 들어섰다. 박 부회장은 고 신준호 회장 때부터 농심과 인연을 맺은 이래 올해 2세인 신동원 회장이 경영을 물려받은 후까지 17년째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박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병학 생산부문장과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이끌어 가게 된다.

30일 이투데이가 분석한 전문경영인 근속연수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 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 등 소비재 기업에는 10여 명의 CEO가 10년 이상 기업을 진두지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구(72) 신세계인터내셔널 ‘자주’ 사업부문 대표도 장수 CEO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조선호텔과 스타벅스코리아 사장을 거친 그는 20년째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를 바꿔가며 경영을 이끌고 있다.

이 밖에 오리온홀딩스 허인철

정연승 유통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제조업 기반인 소비재 기업은 스테디셀러 제품이 많고 그만큼 스테디셀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전문경영인으로 선호해 왔다”며 “유통채널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 비해 제조업은 이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도 장수 CEO를 배출해낸 배경”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최근 소비재 기업도 신제품과 신사업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장수 CEO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 대표 장수 최고경영자(CEO)인 박 부회장처럼 소비재 기업에는 유독 ‘장기집권’ CEO가 많다. 최근들어 유



유현희 기자 yhh1209@

고용 불안 파고든 홈쇼핑...골프연습장 창업 상담 나선다

“골프산업 성장세”...자영업자 관심
GS·롯데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

다고 밝혔다. GS마이샵은 12월1일과 4일,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 VX의 실내 골프 연습장 프랜차이즈 ‘프렌즈 아카데미’ 창업 상담(가맹모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상담이 예약되면 추후 해피콜을 통해 세부 조건 등을 안내하게 된다.

GS마이샵을 통해 ‘프렌즈 아카데미’를 창업하는 고객이 2022년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1200만 원 상당의 가맹비와 교육비가 면제된다. 또한 시스템 구매 비용을 20% 할인해 주며, 점포당 4만 8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커버 100개를 제공한다.

골프존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진행된 GDR 플러스 창업설명회는 상담 문의 콜수 목표치 140%를 달성하며 예비 창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VX의 실내 골프 연습장 프랜차이즈 ‘프렌즈 아카데미’ 사진제공 GS리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골프산업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며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홈쇼핑업체가 스크린골프장 창업 설명회를 여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프렌즈 아카데미’는 창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권 분석부터 계약, 인테리어, 운영 컨설팅까지 체계 있는 매뉴얼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가 점주 및 파트타임 근무자가 밀착 운영 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 달에는 롯데홈쇼핑에서 골프존이 골프 연습 시뮬레이터인 GDR 플러스의 비대면 창업설명회를 열었다. 롯데홈쇼핑 역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비 창업주들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4월에도 골프존과 손잡고 GDR 아카데미 ‘이용권’과 ‘골프 레슨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재미를 봤다.

따르면 골프연습장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어든 반면 스크린골프장 가맹점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밀폐된 스크린골프장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골프장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홈쇼핑 업체가 스크린골프장 창업 상담 방송에 나선 것은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골프 열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금융그룹이 국내 자영업 시장을 분석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구성현 기자 carlove@

국가혁명당 ‘33정책’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1.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1억 원 지급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2.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지급 시작)
3. 결혼시 3억 원 지급[결혼자금 1억+주택자금 2억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4.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 (")
5. 육아수당 (유아 1인당 10세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
6. 3종 무료카드 지급(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안경 무료제공 카드/청소년 안심식사 카드) (")
7. 1억 미만 소액투자자 증권거래세 폐지
8.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단체장 선거 폐지
9.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으로 대학 결정)
10.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국민배당금 자원마련 방법

1. 국가예산 70%절약으로 400조 마련
2. 36가지 세금 통합으로 100조 마련
3. 재산비례 벌금제로 100조 마련
4. 고소득자 탈세 방지로 100조 마련
5.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6. 양적완화로 코로나 긴급자금 마련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 02-783-8011~5

국민銀, 3600만명 고객 기반 '맞춤 금융' 새 지평 연다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 신청
마이데이터 미동의 고객정보 확보
계열사 통합플랫폼 내년 6월 오픈
자산관리 전담 서비스업 탈바꿈
겸영업무 인정여부 최우선 과제로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금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여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KB국민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인구 절반 이상인 3600만 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은행의 사업 모델 유행과 결과 데이터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KB증권 등 KB금융계열사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내년 6월에 오픈한다. 고객 데이터를 한데 모아 현시점보다 더 구체적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든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금융감독원에 허가 신청한 것도 데이터 신사업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사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마이데이터 동의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의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 겸영업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 개인화 마케팅에 주력한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주식 등 비은행권 투

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탈계좌 현상과 사용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사업은 은행들이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금융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 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개인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세분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객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증권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고, 투자하는 고객이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해외 주식에 관심을 돌릴 수 있고 그럼 이분들에게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금융당국이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이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은행법에서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금융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다.

은행들은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이 마이데이터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겸영업무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겸영업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을 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존 은행들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사업 내용은 고유 업무에 준하는 정도여서 허가 신청과 수리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 유형이 아닌 상황에서 한 금융회사에 허가를 내주면,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금융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문의가 있었던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신청 내용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겸영업무를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지연 기자 sjy@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 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금융당국 주장들 '긍정 시그널'

금융당국이 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족쇄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미래 금융 패권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빅테크보다 데이터 확보 수준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그룹들이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금융당국이 이에 화답을 보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 금융지주 내 고객 정보 공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금융지주 데이터 활용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3년 만에 지주 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지주 산하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룹 자회사끼리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서만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영업이나 마케팅 차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일을 말한다.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 업무다.

쉽게 말해 A 금융그룹 내에 있는 보험사가 계열사 은행의 담보물권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도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받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보 공유에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빅테크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기술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당국의 주장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금융지주사의 숙원 사업인 지주 내 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시중은행장을 만나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데 지주사법은 경영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만약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가해 준다면 이제 영업 목적으로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의 법령 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을 하거나 고객 개별의 동의를 얻어 하는 식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텐데 현재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후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서지연 기자 sjy@



‘백신 패권주의’ 유럽, 변이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18개국 확인 ‘오미크론 교훈’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유럽을 덮쳤다. 11월 중순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개발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백신을 ‘싸쓸이’했다. 그러나 백신 부국들의 집단 면역 환상은 변이의 역습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전 세계가 전염병 퇴치에서 결코 ‘나 홀로’ 생존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미국 CNN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아프리카발(發) 새 변이 오미크론은 30일(현지시간) 현재 18개국에서 확인됐다. 애초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보츠와나 19건, 남아프리카공화국 77건에 이어 유럽,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에서도 보고됐다. 체코 1건, 오스트리아 1건, 덴마크 2건, 독일 3건, 이스라엘 1건, 이탈리아 1건, 네덜란드 13건, 포르투갈 13건, 스페인 1건, 영국 11건, 벨기에 1건, 스웨덴 1건, 홍콩 3건, 캐나다 3건, 호주 2건이다. 오미크론이 처음 확인된 지 약 15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개도국 낮은 접종률” 경고 무시
獨·英 등 감염자 늘고 日도 확인
선진국 65% 백신 완료율 무력화
‘나 홀로’ 생존 불가능 깨우쳐줘

지난달 24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뚫린 것이다. 여기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8일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확인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영국은 재빠르게 아프리카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지만, 감염자는 계속 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보고된 감염자는 여행 이력조차 없다. 당국자는 이미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집단감염도 속출했다. 프로축구 벨레네스 소속 선수와 직원 13명이 무더기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변이가 더 강력하게 진화해 유럽의 높은 백신 접종 완료율(60%)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스페인은 이날 자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

미크론은 면역력이 약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 변이의 등장은 예견된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백신 공급 불평등이 코로나19 변이 출현을 재촉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선진국들을 향해 백신 사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는 한 전 세계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술한 경고와 비난에도 선진국들은 백신을 쓸어갔다. 영국 시장분석회사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점점 더 많은 백신을 쌓아 두고 있다. 초과분이 계속 늘

어 2022년 6월 미사용 재고분이 약 10억 회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백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백신 접종률 차이는 현저하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선진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5%인 반면 빈국은 3%에 불과하다.

중국은 오미크론이 확산되자 아프리카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부국의 백신 싸쓸이가 변이 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손가락을 얹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아공이 오미크론 확인 후 전 세계에 신속하게 보고해 각국의 대응 속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남아공은 지난달 14일 자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된 지 열흘 만에 WHO에 보고했다. 중국이 기원을 알 수 없는 폐렴의 집단 감염을 인지하고도 쉬쉬 한 것과 대조된다. 주요 7개국(G7)도 한목소리로 남아공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원죄’와 선진국의 ‘백신 이기주의’로 전 세계가 변이의 역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오미크론 확산에 글로벌 경제 휘청 파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커졌다”

韓 기저효과에 10월 생산↓
“2045년 잠재성장률 -0.56%”
美 긴축 시동 걸자마자 복병
“고용·경제 하방 위협 고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10월 산업 생산이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0% 감소해 지난해 5월(-7.7%)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광공업 생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3.1% 줄면서 7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해 자동차(-5.1%)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1차 금속(-5.9%)도 생산이 줄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생산 감소가 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과 기저효과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국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과 오미크론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변화로 인해 우

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에서 “2045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 요소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 수준에 수렴하면 -0.56%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도 오미크론 공습에 길을 잃게 됐다. 주요국 금융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시동을 걸자마자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0일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것은 미국 고용과 경제활동에 있어 하방 위협을 제기하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 사태 이후 도입했던 양적완화 조치를 거둬들이고 기준금리 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연준은 지난달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11월 말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물가도 치솟고 있어 유럽중앙은행(ECB)이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춰왔다.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모드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덮친 것이다.

블랙록의 알렉스 브래지어 전락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와 정도를 고민할 것”이라며 “경제 재개 시기가 얼마나 늦춰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위중증 661명, 또 ‘역대 최다’... 학교 집단감염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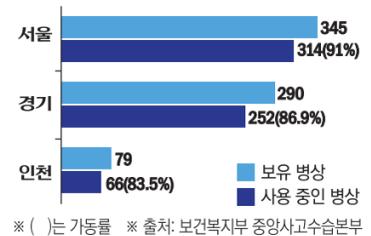
추가 병상 요청, 상급 병원들 난색
지난주 서울 유·초·중·고 1090명
“오미크론 유입시 감당 어려워”

휴일효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0명대 초반을 기록했음에도 위중·중증 환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3003명, 해외유입은 29명이다. 특히 사망자는 전날보다 44명, 위중·중증환자는 3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재원 중인 위중·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지난달 28일(이하 발표 기준)에 이어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휴일 효과가 종료되는 12월 1일부터 다시 신규 확진자가 4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병상 여력은 이미 한계지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 가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
(단위: 개, 29일 오후 5시 기준)



동률은 70.7%, 수도권에선 75.9%를 기록 중이다.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가동률(78.5%)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대전과 경북에선 모두 소진됐으며, 광주와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의 가용 병상도 한 자릿수다. 이 밖에 준중환자 병상은 70.1%가 사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또다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 조찬 회의를 열었지만 병원장들은 난색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0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34.6%, 19세 이하는 20.3%다. 상반기 접종을 완료한 고

령층의 면역 효과 감소와 소아·청소년의 낮은 예방접종률에 기인한다.

소아·청소년의 낮은 접종률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광주 서구 초등학교(총 19명), 부산 동래구 초등학교 두 곳(각각 16명, 20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연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확진자는 1090명이었다.

전파력과 백신 저항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위험요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될 경우 현재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아직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소중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며 “추가접종도 필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첫백신’ AZ 퇴장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0일 종료된다. AZ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생산된 ‘국내 1호’ 백신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AZ 백신 1차 접종은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0시 기준 AZ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1차 접종자가 1111만8216명, 2차 접종자는 1102만9768명(교차접종 포함)이다. 2월 26일부터 60~74세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의 접종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초기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영하 70℃ 이하 냉동보관이 필요했던 반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AZ 백신은 냉장보관이 가능해 mRNA 백신 보관·유통체계와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예방접종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1차 1112만·2차1103만명 접종
간격 길고 30세 이하 제한 때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논란으로 한때 사용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8월부터 사용이 재개됐다. 지난달 29일 0시 기준 AZ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53%로 화이자(0.37%)보다 높지만, 모더나(0.65%)와 안센(0.57%)보다 낮다.

AZ 백신 접종 종료의 주된 배경은 필요성 감소다. 이상반응 이슈, 상대적으로 낮은 예방효과 등으로 선호도가 낮은 데다,

1차 접종 마무리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삼성바이오로직스), 노바백스 백신 기술이전(SK바이오사이언스) 등으로 다른 백신 수급이 안정된 까닭이다. 특히 AZ 백신은 1·2차 접종 간격이 8~12주로 화이자(3주), 모더나(4주)보다 길어 집단면역 형성을 늦춘다는 단점이 있다.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0세 이하에게 접종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이날까지 AZ 백신 1차 접종자는 8주 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하게 된다. 50세 이상 피접종자는 희망 시 1차 접종 4주 후부터 연말까지 AZ 백신으로 2차 접종할 수 있다.

백신 추가 도입도 순조롭다.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도입이 예정된 물량은 총 9800만 회분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장기 하락 추세〉

‘D램 다운사이클’ 끝나나… 수급 불균형 회복세

반도체 산업 전반에 드리운 수급 불균형 리스크가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었던 D램은 저점을 찍고 반등 기조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메모리 다운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도 회복 궤도에 접어들었다.

3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가격 지표로 인식되는 DDR4 8Gb(기가비트)의 전달 현물거래가격은 평균 3.22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보다는 0.28% 상승했고, 24일(3.214달러)보다는 0.37% 올랐다.

이 제품 현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건 7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 가격 오름세가 한 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제품인 DDR4 16Gb의 가격도 지난달 26일 상승했는데, 이는 6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3달러 선 위로 올라온 D램 현물가(DDR4 8Gb 기준)는 올해 상반기 4달러대를 돌파하고 5달러대

D램 현물가 오름세 낙관론 고개 ‘공급과잉 급락’ 5개월 만에 반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도 완화 전문가들 “내년 봄쯤 해소될 듯”

초반까지 고공행진을 하다 하반기 들어 내림세에 진입했다.

현물 가격이 통상 시장 분위기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고정거래가격 하락 현상도 뒤이어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0월 PC용 D램 범용제품의 고정거래가격 평균값(3.71달러)은 9월(4.1달러)보다 9.51% 하락하며 D램 비관론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D램 현물가가 가격 상승 조짐이 비추며 ‘메모리 다운사이클’ 폭이 애초 전망보다 깊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8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18일 3개월 만에 “(메모리 반도체) 4분기 가격은 예상보다는 ‘덜 나쁜’(less bad) 편’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지연되며 비대면 수요 재개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마존, 메타 등 서버 고객사의 메모리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지연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주문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와 델, HP 등 PC 업체들의 4분기 D램 주문량은 기존 전망치를 30%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제품인 DDR5 보급률이 상승하며 가시적인 고정거래가격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DDR5 제품은 기존 DDR4 제품보다 가격이 20~30%가량 높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샤이신문(닛케이)은 30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 5개사의 9월 말 기준 재고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나면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이 줄어들면서 이어졌던 수급 불균형이 한층 누그러들면서 자동차 생산 회복에 힘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 대

기업 컨티넨탈은 “반도체 부족 최악의 시기는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품사 등 조달망 전체에 반도체 재고가 충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벅츠 NXP 최고재무관리자(CFO)는 “보유 재고와 시중 재고를 목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 분기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리서치업체 옵디아의 미나미카와 아키라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 봄쯤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우리 기자 we1228@·변효선 기자 hsbun@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전장사업 가속페달 차량용 반도체 3종 공개

차세대 통신·프로세서·전력관리칩 LG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

삼성전자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를 공개하며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전장 사업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특히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의 경우, LG전자와 협업해 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30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제품은 △통신 칩 ‘엑시노스 오토 T5123’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전력 관리칩(PMIC) ‘S2VPS01’이다.

‘엑시노스 오토 T5123’는 차량용 통신 칩으로는 업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초당 최대 5.1Gb(기가비트)의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행 중에도 끊김 없이 고용량·고화질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최신 5G 기술 기반의 멀티모드 통신칩이 내장돼 5G 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SA모드(Stand Alone)와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NSA모드(Non-Stand Alone)를 모두 지원한다.

‘엑시노스 오토 T5123’에는 Arm사의 ‘코어텍스(Cortex)-A55’ 코어 2개와 ‘GNSS(위성항법시스템)’를 내장해 텔레매틱스 시스템 개발을 더욱 쉽게 했다. 이 제품은 차량이 5G 모뎀을 통해 송수신되는 빠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 인터페이스인 ‘PCI 익스프레스(PCIe)’와 저전력 고성능 모바일 D램 ‘LPDDR4X’를 지원한다.

‘엑시노스 오토 V7’은 LG전자 VS 사업 본부에서 제작한 폭스바겐 ICAS 3.1 인포

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됐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한 ‘디지털 콕핏’에 앞서 LG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완성차 업체에 반도체를 공급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LG전자 VS사업 본부를 통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사실을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해 LG를 비롯한 경쟁사들과도 필요할 경우,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엑시노스 오토 V7’은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해 가상 비서 서비스, 음성, 얼굴, 동작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불량 화소 및 왜곡 보정 기술, 이미지 압축기술(DRC)도 내장했다. 최대 1.5GHz(기가헤르츠) 속도로 구동되는 Arm사의 ‘코어텍스(Cortex)-A76’ 코어 8개, ‘Mali-G76’ 그래픽 처리장치(GPU) 코어 11개로 구성돼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카메라는 최대 12개까지 지원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는 전력관리칩 ‘S2VPS01’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생산업체(OEM)와 주요 파트너사들이 필수사항으로 꼽는 조건 중 하나인 ‘에이실(ASIL)-B’ 인증을 획득했다. ‘에이실-B’는 차량용 시스템 안전 기준으로 사고의 발생 가능성, 심각도, 운전자의 제어 가능성을 바탕으로 4개의 레벨(A, B, C, D)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B레벨 수준을 요구한다. 이 밖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사용환경에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압·전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보호 기능, 발열 차단기능, 자가 진단기능까지 탑재됐다.

송영록 기자 syr@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DB금융네트워크

DB손해보험 | DB생명 |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 DB자산운용 | DB캐피탈

평택 고덕 4.8억, 부산 장안 3.1억 분양가 책정

<호반 씨밋 84㎡>

<중흥 S클래스 59㎡>

13~15일 민간1차 사전청약 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 10채 중 9채 3억~4억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민간 1차 사전청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에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추가로 나온다. 평택 고덕지구 700가구, 인천 검단지구 2700가구 등 2개 지구에서 약 3400가구 규모가 추가 공급된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1차 사전청약에는 우미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

우선 오산 세교2지구에는 A-14블록 내에 전용면적 59~84㎡ 1391가구가 '우미린' 브랜드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59㎡ 822가구 △72㎡ 233가구 △84㎡ 336가구다. 오산 세교2지구는 동탄신도시, 오산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오산역·오산대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에는 A-49블록에서 전용 84~100㎡ 633가구가 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 지역은 '호반 씨밋'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 403가구 △100㎡ 230가구다. 지구 내 삼성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며, 외국 교육기관 등 국제화 계획 지구로 특화돼 조성될 계획이다.

부산 장안지구에는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04가구가 민간 사전청약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59㎡ 231가구 △84㎡ 273가구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있어 교통·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가장 관심이 높은 추정분양가는 전용 100㎡인 대형평형을 제외한 90% 물량이 3억~4억 원대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오산 세교2지구는 3.3㎡당 1247만 원, 부산 장안지구는 3.3㎡당 1239만 원이다. 전용 84㎡ 기준 오산 세교2지구는 추정분양가가 4억3560만 원, 부산 장안지구는 4억2520만 원이다.

평택 고덕지구는 추정분양가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3.3㎡당 1425만 원으

민간분양 1차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 출처: 국토교통부

지구명(브랜드)	오산세교2(우미 린)	평택고덕(호반 씨밋)	부산장안(중흥 S-클래스)
공급 가구수	1391	633	504
주요 주택형 분양가 (만 원)	59A 3억180	84A 4억7860	59A 3억1242
	84A 4억3560	100 5억6140	84B 4억2520

로, 전용 84㎡ 기준 추정분양가는 4억 7490만~4억7860만 원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 사전청약보다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계층 참여 기회가 다양하게 확대됐다.

전체 물량의 27%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39.4%, 특별공급의 17.9%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분양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사전청약이나 공공 3차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는 만큼 민간 사전청약은 1개 단계에서만 신청해야 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3기 신도시 2년반 만에 지구계획 모두 승인

부천대장 2만·고양창릉 4만 가구 오늘 하남교산 등 공공 사전청약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고양 창릉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후 2년 6개월 만에 모든 지역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모두 승인 =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신도시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천 대장지구는 총 1만9500가구, 342만㎡ 규모다. 고양 창릉지구는 3만 8000가구, 789만㎡로 조성된다. 이로써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내 모든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지구계획은 해당 지역 내 건축물 높いや 용도, 개발밀도,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절차상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야만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물량은 9만2000가구, 민간물량은 8만40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 물량 중 9만7000가구는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부천 대장신도시에는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 공원의 약 5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전체 면적의 32%), 판

교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된다. 이달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최초 공급되며 2024년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52만㎡)를 자족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자리 기능을 강화해 서울과 수도권 경부축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정밀의료기기와 지능형 생활가전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인천 계양과 서울 마곡지구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고양 창릉신도시에는 약 3만8000가구 규모 주택이 건설된다. 이곳은 군 시설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해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38% 이상이 녹지로 조성돼 쾌적한

3기 신도시 사업 현황

※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면적	1104만㎡	631만㎡	333만㎡	789만㎡	342만㎡
가구 수(단위: 만)	6.8	3.2	1.7	3.8	2
추진 현황	지구계획 승인 (8월)	지구계획 승인 (8월)	지구계획 승인 (6월)	지구계획 승인	지구계획 승인

주거환경을 갖춘 전망이다. 또 고양선과 수도권급행철도(GTX) A노선 신설역 등 교통 핵심지에 위치해 상업과 업무,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사전청약은 지난 7월과 10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2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돼 총 1만 4435가구가 공급됐다. 매 공급 회차별로 10만 명가량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인천 계양신도시 전용면적 84㎡형의 사전청약 경쟁률은 381대 1에 달했다.

1일부터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시흥

하중·양주 회천지구 등 4167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또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200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 신길2(1400가구)지구 등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공공 4차 사전청약(1만4000가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확정으로 정부 205만 가구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주택 공급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소설가 이상이 다니던 경양식집도 폐업

일제시대인 1925년 개업한 한반도의 첫 경양식 식당인 서울역 그릴이 코로나19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30일 폐업했다. 한 직원은 "코로나로 영업 타격이 심했다"면서 "식당이 있는 서울역사 4층은 모두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식당가로 변신한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상이 소설 '날개(1936년 작)'에서 '나는 메뉴에 적합한 몇가지 안되는 음식 이름을 치우고 내리읽고 여러번 읽었다'며 옛 서울역사 2층에 위치한 초창기 그릴을 묘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출 호조로 근로자 1900만명 사상 첫 돌파

코로나 확산으로 증가폭 둔화 숙박·음식점 21개월째 감소세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900만 명을 돌파했다. 다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지난해 방역조치 완화로 종사자 감소폭이 축소된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둔화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8000명(1.0%) 늘어난 1900만2000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종사자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종사자 수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지만 증가폭은 올해 3월(19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전년도 종사자 감소폭 축소의 기저효과가 증가폭을 둔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의 고용 악화가 계속됐다. 이 업종의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1만6000명 줄어 2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수출 호조 등으로 2만6000명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 등도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에 상용직근로자 수(+15만7000명)가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러 '북극항로' 개발 협력 유럽까지 거리 3분의 1 단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구축 북극 LNG 사업 지분 투자 공동연구로 이상기후 예측

정부가 러시아와 북극항로 항만 개발과 내륙수로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협력에 나선다. 북극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패키지방식 참여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과학연구 중심이던 그동안의 북극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발굴,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러시아와 북극항로 항만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를 추진한다.

부산항~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북극항로 이용 시 수에즈 운하 대비 운항 거리와 일수가 3분의 1 단축된다.

또 2030년 이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

비해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 구축도 검토한다.

북극 LNG 사업에 지분 투자와 LNG 선박 건조를 통한 운송 참여 등 해운·조선·물류·에너지 동반 진출도 추진한다.

러시아 에너지·북극항로, 노르웨이 수산, 덴마크 영구동토층 연구, 미국 북극항로, 캐나다 원주민, 아이슬란드 에너지·수산, 스웨덴 자율운항선박, 핀란드 친환경 선박·해저케이블 등 8개 연안국과 맞춤형 협력사업(Arctic-8 프로젝트)도 발굴·추진한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해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한다.

아울러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40%에서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90%)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온



번거로운 이사행정! 원클릭 서비스 **이사온**으로 한번에!

이사 한번 하려면 계약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서류 발급도 오래 걸리고, 여러 곳에 방문하려니 귀찮고,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이사업무가 따로따로!

계약서 발급부터 전세대출 신청, 확정일자 확인하고 전입신고까지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곳, **서울지갑 이사온**!

서울지갑 앱, 지금 다운 받으세요!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서울지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문서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합니다.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박완주 “세금 탓에 못 판다는 여론 커”
1주택자 12억까지 비과세 이어 추진
당정,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

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실거

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이로써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들 앞두고 예산안 협의를 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

상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늦어도 1일까지 협의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000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바 아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교수와 미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선대위원장 임명한 이재명

**조동연 교수·송영길 ‘투톱’ 위원장 구상
李 “기성세대 반성을” 선대위원도 2030**

20·30대 지지 호소에 공들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첫 인재영입도 30대 여성을 내세웠다. 만 39세 여성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및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조 교수 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젊은 청년 세대의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문제 그 자체다. 젊은 미래로 갈 선대위의 길에 앞장서실 조 교수를 환영한다”며 “조 교수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미래산업의 한 중심엔 항공·우주 산업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기회 총량 부족으로 청년 세대가 편을 갈라 싸우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 낸 점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의 청년 책임론을 재차 꺼냈다.

조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뒤 이라크 자이툰 사단과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복무했고, 우주항공 전문가로서 서경대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1호 영입인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로 1982년생 여성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고 미래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안보를 맡는 군의 경력도 지녔다는 점에서 미래를 향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공언한 선대위 ‘슬림화’에 따라 현재까지는 상임선대위원장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조 위원장이 ‘투톱’으로 선대위를 이끄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선대위 재편을 결정하기 전에는 대선 의원들 십 수 명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무게감이 지나치고 의견을 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 대표, 청년과 미래를 상징하는 새 얼굴이 나란히 투톱으로 나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론 송 대표와 둘이서 선대위원장으로선 선대위를 끄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대위원의 경우도 20·30대로 꾸리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 후보 직속 국가인재영입 총괄단장인 백해련 의원이 인재영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화장하고 2030 만난 윤석열

**앞머리 올리고 끈대 스타일 변신 노력
땃새째 청년 소통…청년보좌역 모집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 표심을 노린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윤 후보는 최근 20·30대를 의식한 듯 헤어팁과 메이크업팁을 동행하며 피부 화장, 머리 모양 등 스타일링에 변화를 줬다. 여기에 더해 땃새째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 보좌역 모집에 나서는 등 젊은 층을 직접 겨냥한 행보에도 힘을 쏟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30일 충청북도 청주 방문 일정에 회색 정장과 와인색 계열 스웨터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머리 모양도 기존과 달리 앞머리를 올렸고 피부도 화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근 윤 후보의 일정에 헤어팁과 메이크업팁이 동행하는 중이다.

윤 후보가 변신한 이유는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윤 후보는 어두운색 계열 옷을 입고 피부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에 참석해 젊은 층으로부터 권위적인 사고를 하는 ‘끈대’ 이미지로 각인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젊은 층 잡기는 이미지 변신에만 있지 않았다. 이날까지 땃새째 청년들을 만나며 소통에 노력했다. 특히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을 공개 모집한다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겠다”며 “청년을 선거용 장식품으로 잠깐 쓰고 버리지 않고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후 일정으로도 스타트업 방문, 에너지 산업 현장 등 젊은 층과 관련한 일정을 계획했고 스타일 변화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침에 나올 때 얼굴에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많은 분이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후보가 청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일부러라도 일정에 청년과 동행해 청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일정에도 청년을 강조하는 행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스타일링 변화도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얘기했다.

청주=박준성 기자 joooon@

이준석, 폰 꺼놓고 칩거…김병준 “흠 있었다” 한발 물러서

홍준표 “캠프 이상한 사람 설쳐 잡탕 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패싱 논란’에 30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또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일정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중대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 참석이 예정됐던 한 언론사의 창간 기념행사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 라디오 인터뷰 등의 일정을 취소한

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다. 당 대표 일정을 당일엔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가 선대위 위원장직 사퇴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선, 일정 등을 두고 윤 후보 측의 패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 후보는 2차 인선안을 확정하며, 이 대표가 반대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선

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며 “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 벌써 자리싸움이니 참 한심하다”고 밝혔다.

당대표 패싱 논란이 지속되면서, 김 전 위원장 등 판을 지지했던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

방’이 선대위 인선을 주도하며 당을 위기로 몰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윤 후보의 귀를 잡고 쇠신과 변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후보 측은 ‘이준석 패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충청 일정’과 관련해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김병준 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윤 후보의 충청 일정과 관련해 “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트위터 공동창업자>

트위터 사표 던진 잭 도시, 새 동지는 '비트코인'

**“창업자 경영 긍정적이지 않아”
독특한 경영으로 안팎서 반감
가상자산 관련 활동 주력할 듯**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공동창업자 잭 도시(45)가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트위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이 그간 관심을 쏟아온 가상자산(가상화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시 CEO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창업

자들의 시대로부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잭 도시는 기한이 남은 2022년 주주총회까지는 이사회 멤버로 남고, 이후 이사회에서도 떠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파라고 아그라왈(37) 최고 기술책임자(CTO)가 임명됐다. 아그라왈 신임 CEO는 도시의 절친한 친구로 트위터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등의 전략을 주도해왔다. CTO는 2017년에 올랐다.

도시는 구체적인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 CEO직에 복귀한 이후부터 계속 퇴임 시기를 고민해 온 것

로 알려졌다. 그는 “실리콘밸리 덕목으로 여겨지는 ‘창업자 경영’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 회사가 창업자의 영향이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홀로 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긴 수염, 코걸이와 같은 그의 패션 스타일처럼 도시의 경영 스타일은 다른 실리콘밸리 창업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부하 직원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그의 경영 스타일 덕에 도시 CEO는 트위터 경영에만 얽매이

지 않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열정’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만큼 회사 안팎의 반감도 강했다. 도시는 2006년 트위터 출범 직후 CEO를 맡았지만 2008년 잦은 결근과 경영 스타일에 대한 우려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2015년 트위터 CEO로 복귀했다.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굵지 않았다. 트위터의 지분을 사들인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도시 CEO가 비트코인 옹호 등 외부 활동을 하느라 본업인 트위터 경영을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도 그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산업은 물론 각국의 민주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가짜뉴스를 비롯해 콘텐츠 검열 등의 논란으로 미국은 물론 각국 정치권의 압박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시장에서는 이제 도시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CNBC는 도시 CEO가 트위터에서 물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2006	2007	2009	2013	2015	2021
트위터 공동 설립 후 첫 트윗 올림	이사회와 총동 CEO 직에서 해고	전자결제서비스 업체 스케어 설립	트위터 설립 7년 만에 기업공개, 역만장자 반열에 올라	트위터 경영 일선에 복귀	- 트럼프 지지자 의사당 난동 후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처리 - NFT로 만든 자신의 첫 트윗(2006년)을 290만 달러에 판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통업체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연말대목 물류대란 해소” 유통CEO 호출한 바이든

**기업 10곳 대표 회의 소집
외국기업으로 삼성이 유일
공급망 관련 정보 제출 지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물류 대란과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요 기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는 한편 기업들에 사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 주요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나 물류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총 10개 기업이 자리한 가운데 외국기업 중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오늘 이곳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미국 내 광범위한 소비를 책임진다”며 “이번 휴가 시즌에 무엇이 포착됐는지, 필요한 제품은 얼마나 준비됐는지, 공급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혁신하고 고용했는지 등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비자 지출 관련 지표가 회복세인 점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품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마주하는 동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월마트 등 메이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대란과 관련한 사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업체는 45일 안에 FTC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FTC는 이번 조치가 법 집행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급망 문제 배정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TC의 지시에 따라 업체들은 주문 지연과 가격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공급망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만과 제조업 현장이 공급 문제를 겪고 있고,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물류 배송은 차질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와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엔 몇 달 넘게 수십척의 컨테이너선이 하역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현재의 혼란을 악화하고 비대칭 효과로 이끄는 시장 상황과 사업 관행을 공급망 조사가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급망 혼란에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데 이어 사이버먼데이 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일즈포스는 이날 정보 기준 온라인 매출이 40억 달러(약 4조7540억 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WSJ는 “전문가들은 할인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지출 동기가 감소해 온라인 판매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란 핵합의 협상’ 5개월 만에 재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리고 있다.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알리 바게라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 등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북원 협상이 재개된 건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바게라카니 차관은 이날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모라 사무차장은 “이란이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빈/로이터연합뉴스

‘중 규제’ 알리바바, 1년 새 시총 반토막

엔트그룹 IPO 무산 직격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 홀딩이 구축한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해 11월 산하 금융회사 엔트그룹의 상장이 당국의 압력으로 중단된 이후 본업이 활기를 잃었고, 최근 1년 새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증발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기세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알리바바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인 자회사 엔트의 초대형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던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염병 대유행)에 따른 인터넷 쇼핑도 활기를 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약 6조 6000억 홍콩달러(약 1005조7080억 원)까지 치솟는 등 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1년 새 이러한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 알리바바의 현재 시총은 약 2조8000억 홍콩달러 수준으로 50% 이상 급감했다. 상장이 중단된 엔트의 기업 가치는 1년 전 3000억 달러 이상에서 2000억 달러 미만까지 떨어졌다는 추산이 나온다.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알리바바 자체의 성장세마저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 통신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커머스 사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나 감소했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11일 끝난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의 올해 거래액이 사상 최대인 5403억 위

홍콩중시서 알리바바 주가 추이
(단위 : 홍콩달러) ※출처 : 니혼게이지신문



안(약 100조7065억 원)에 달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세일 기간을 대폭 늘려 실현한 숫자라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알리바바 역시 올해 하반기 매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웨이 알리바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 매출 증가율이 11~1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증가율이 41%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성장 위축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삼성, 美투자’에…EU도 해외투자자에 러브콜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신규 파운드리 생산라인 건설을 결정한 가운데 유럽도 해외 투자자들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EU가 반도체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반도체 생산엔 높

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EU가 여기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유럽에 다른 차원의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우린 2030년까지 유럽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두 배로 늘리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에 머문다. 1990년대 한때 40%를 웃돌았지만, 한국과 대만, 미국 등에 입지를 빼앗긴 상태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는 반도체 생산 부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중”이라며 “우린 글로벌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될 첨단 반도체 제품의 20%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잘 작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U는 과거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유럽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경계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입장을 선화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NFT마켓 연 두나무 “검증된 작품으로 지재권 문제 해소”

23일 NFT 거래 플랫폼 공개
장팔 작품 ‘입찰가 85배’ 낙찰
NFT 지재권 침해 논란엔
플랫폼 차원에서 적법성 검토
신진 아티스트 발굴 지원도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대체불가토큰(NFT)마켓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검증된 NFT만을 제공하는 ‘업비트 NFT’의 큐레이티드 마켓이 특징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시장성이 검증된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IP를 활용한 디지털 콜렉터블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301만→2억5527만...경매가 85배
경중 = 업비트는 지난 23일 NFT 거래 플랫폼을 공개했다. 검증된 NFT를 경매하는 ‘드롭스(Drops)’와 소장한 NFT를 회원들이 상호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Mar-

ketplace)’가 양대 축이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드롭스에서 낙찰받은 NFT나, 업비트의 NFT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NFT를 거래할 수 있다. 업비트는 플랫폼 공개 다음날인 24일 첫 드롭스 경매를 진행했다.

첫 경매의 주인공은 장팔의 ‘Mirage cat 3’였다. 0.0416BTC(약 원화 301만원)에서 시작, 최종가 3.5098BTC(원화 2억5527만 원)로 마감됐다. 24시간 사이 경매가가 85배가 뛰어오른 셈이다. 기세를 이어 26일 시작한 김선우의 ‘Orchestra of the forest’ 또한 2.2000BTC(원화 1억5989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작품들은 모두 NFT 발행 방식에 걸맞게 모션·음악이 이미지에 결합된 복합 예술의 형태다. 1일에도 한국화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 류재준의 ‘월하2021’ 작품이 드롭스를 통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NFT플랫폼 공개에 앞서 두나무는 꾸준히 밑바탕을 그려왔다. 서울옥션블루·아이에스에이 컴퍼니 등과 NFT 관련 사업 협력을, JYP·하이브 등과 NFT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게 대표적 사례다. NFT

크리에이터명	작품명	낙찰가	발행수량
장팔	Mirage cat 3	3,50980000BTC	1
김선우	Orchestra of the forest	2,20000000 BTC	1
장팔	You are not alone 1	0,00139990 BTC	900
김선우	The journey of Dodos	0,00139990 BTC	99
류재준	월하2021	12월 1일 경매 개시	200

※출처: 업비트 NFT 베타

콘텐츠를 확보, 글로벌 NFT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깔아왔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및 팬덤 기반 콘텐츠를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를 커버하는 종합 NFT 마켓플레이스로 성장 예정”이라며 “초기에는 시장성이 검증된 예술 분야의 NFT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스포츠·방송·패션·게임 일러스트 등 다양한 IP를 활용한 디지털 콜렉터블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NFT 활성화 뇌관 ‘지식재산권’ 이슈 해결...향후 창작자와 공생에도 방점 = 업비트는 드롭스의 거래지원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NFT의 맹점으로 꼽히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한 종합광고대행사는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무제’를 NFT 출품하겠다고 밝힌 후 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 동의 없이 NFT 발행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NFT 발행시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업비트NFT에서는 거래지원 검토 과정을 통과한 NFT만이 거래된다. 개인 혹은 법인 창작자의 고객확인(KYC)은 필수로, NFT나 NFT에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의 적법성이나 발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다. 크리에이터가 최초 발행한 NFT가 거래되는 드

롭스뿐 아니라 회원들이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검증된 NFT들만이 거래되는 구조다.

두나무 관계자는 “법무 검토를 철저히 해 저작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차원에서 콘텐츠 품질이나 적법성을 검토하는 큐레이티드 마켓”이라고 전했다.

창작자들을 위한 계획 또한 마련 중이다. 창작자들은 누구나 두나무와 NFT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NFT 판매를 구상 중인 개인 창작자·법인은 거래 지원 문의를 통해 답변을 구할 수 있다. 업비트는 ESG 활동의 일환으로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창작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려 나갈 계획이다. NFT 거래 수수료 일부를 창작자에게 돌려주는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890만 업비트 회원을 적극 활용, NFT 대중화를 견인하려고 한다”이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NFT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에디슨, 産銀 대출 없이 쌍용차 인수 바람직”

에디슨서 자금 지원 요청 없어
쌍용차 인수 제3기관 검증 필요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 중인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쌍용차 인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에디슨모터스를 향한 시장의 우려를 전하면서 제3의 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에디슨모터스의 자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권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0일 오후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쌍용차 발전 전략에 대한 문건을 제공받은 것 없고 자금 지원 요청도 없었다”라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기사를 통해 (에디슨모터스의 계획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있을 뿐”이라면서도 “산은의 대출 없이 쌍용차 인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의 인터뷰를 봤으며 그게 가능하다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지원하기 힘들다”면서 “일각에선 담보가 있다고 하지만, 담보는 자금 지원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회생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너무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장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3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KDB산업은행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디슨모터스는 자체 기술과 사업계획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고 자율주행, 충전시간 단축, 주행거리 연장 등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적인 금액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100조 원, 폭스바겐그룹은 6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는데 에디슨모터스는 500억 원 수준이면 차량 개발이 가능하고 10종의 전 기차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현 가능하고 소비자 기대를 충족해 매출로

연결될지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에디슨모터스가 제3의 검증기관으로부터 기술과 재무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쌍용차의 성공적인 회생, 에디슨모터스의 계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 시장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쌍용차 발전 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3기관의 검증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발전 전략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를 포함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며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으나 국내 항공산업 정상화 및 기업 인력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공정위를 향해 “일 자리를 보장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본건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다”며 “전 세계 항공산업은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만 뒤쳐져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업이 위험에 처하면 공정위가 추구하는 소비자 복지 증진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9월 열린 간담회에서 도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병욱(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갑수(일곱 번째)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트래블룰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해야”

‘강력한 자금추적 툴’ 기대

“트래블룰이 도입되며 고객정보가 확인되면, 어떤 주소에서 누가 어디로 얼마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강력한 자금추적 툴이 될 것이다. 다만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가 언제 적용되는지 각자 시차가 있다.”

방준호 빙썬코리아 부사장은 30일 트래블룰 도입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에 힘이 실릴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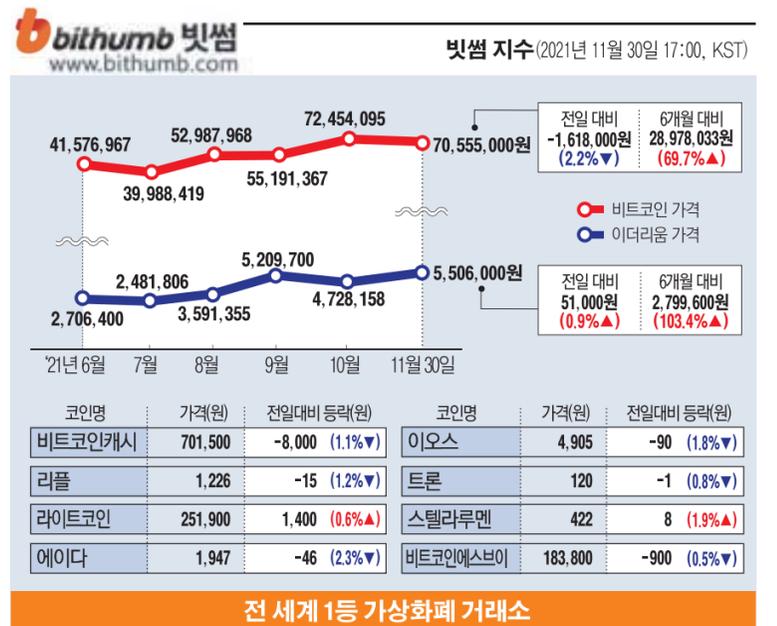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려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김소영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 센터장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금이동규칙 표준 호환성 △자금이동규칙 표준 상호운용성 △전문 양성 및 사업자 목록에 대한 표준 강화가 골자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서로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이 갖춰놓은 시스템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신한銀 스테이블 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

신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기술검증을 완료하면서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현실과 가상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필수적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해외송금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발행을 최종 결정하면 국내 금융사가 발행하는 첫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되는 셈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신한은행은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첫 기술 검증으

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택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해외송금은 은행간 직접 이체로 진행해 중개은행 수수료 등 수수료가 없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료만 건당 100원 이하로 발생하며, 송금 소요시간 실시간에 가깝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비스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신한금융의 ‘더 쉽고 편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맞춰 고객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표증시 '오미크론 쇼크'...산타렐리 물 건너가나

공급망 불안·인플레이 '결악재'
中·日 등 주가도 일제히 하락
자산 가격 급등에 '버블 불안'
긴축 시작되면 충격 불가피

코스피 예상 밴드와 추이
(단위 : pt) ※12월 예상 밴드 : 2950~3150P



“오미크론 봉쇄는 없다...백신 맞고 마스크 써라”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에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환호’는 태평양을 건너면서 ‘절구’로 바뀌었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2% 하락한 2839.01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9일(2820.51)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니케이225, 상해종합, 홍콩항셱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외부 변수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12월 화끈한 연말 랠리의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증시 또 ‘디커플링’, 산타렐리는 글썽 = 지난 1년간 ‘우등생’이었던 한국 증시가 요즘 ‘열등생’ 취급을 받고 있다. 선진국 증시와 달리 우월한 반도체 시장 전망과 ‘오미크론’,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겹악재로 상승 동력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다. 시장에서는 12월 산타렐리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잦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오미크론’ 공포가 발목을 잡고 있다. 김성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 비율이 크지 않다는 관측은 다행스럽지만, 관련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소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배제해도 주요국 신규 확진자가 증가해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모

데나, 화이자 등이 개발하는 기존 백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시, 각각의 봉쇄정책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주요국들의 이동금지명령이 재개되며 여행·항공 관련 섹터의 하락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 움직임, 중국 경기 둔화 및 불안한 반도체 경기 전망 같은 외풍도 산타렐리의 걸림돌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1년 코스피의 마지막 역전을 기대하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한국 기업이익 전망도 4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현재 코스피에 불리한 투자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종전 3700에서 3350으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국내 거시 전망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 긴축 재정 등으로 인해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미크론 ‘유동성 파티’ 끝나나 =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자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으로 재편돼 집값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매수 경쟁이 치열해 집주인이 처음 부른 값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증권시장에서는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의 ‘돈 풀기’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데다 신산업 발달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새 기업이 나타날 때마다 자금을 쓸 어가다시피 하고 있다.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면서 시장에서는 버블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스채팅 창업자는 최근 트윗을 통해 “1920년대보다 투기가 더 많고 1990년대보다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1929년 경제 대공황 직전이나 1990년대 말 닷컴버블 당시보다 거품이 더 많이 끼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버블 논란에 빠진 미국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갑작스러운 조정을 겪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의 파장이 커지고, 긴축이 더해진다면 자산시장의 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주식시장은 민감히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안희 기자 nancho0907@

머니 컨설팅 정확삼 신한PWM강남파이낸스센터장

“깜깜이 증시, 자산 리밸런싱 고려해야”

불확실성 피하려 매도 우위
단기적 시장 변동성 확대



한, 코로나19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동안 비중을 줄이던 부분을 유지하거나 혹은 확대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불확실성의 시대가 대비됐다. 알수없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정확삼(사진) 신한PWM강남파이낸스센터장은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심리가 매도 우위로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업황 둔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도 잠재된 변수로 꼽았다.

만약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우호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할 것을 조언했다. 또

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시장에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코로나19 약재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가장 큰 고정변수인 유동성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단기간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두 가지 변수(유동성·금리)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시장은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미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내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적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실적 기대’ LG이노텍, 장중 신고가

애플카 수혜 기대 4.1% 올라

LG이노텍이 실적 호전 기대감에 힘입어 30일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전날보다 4.10% 오른 30만4500원에 마감했다.

LG이노텍은 장중 32만2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애플 부품사인 LG이노텍은 최근 4분기 실적 개선과 애플카 수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도 LG이노텍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LG이노텍이 내년에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46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1분기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LG이노텍 주가 모멘텀은 2025년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적 확대와 확장 현실(XR) 기기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주가는 꾸준히 재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NH證, 업계 첫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자체 앱 ‘NH투자증권 메타버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자체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메타버스 플랫폼 ‘NH투자증권 메타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NH투자증권 사옥 외관, 사옥 내부의 로비 및 콘퍼런스홀, 여의도 한강공원 등을 담은 공간을 구현해 그 공간에서 이용자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 로비 공간 내 마련된 투자 상담 칸막이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드바이저 상담을 제공하며 콘퍼런스홀에 배치된 키오스크에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와 연동해 ‘중개형ISA 계좌 개설’과 ‘해외주식 현재가 조회’가 가능하게끔 했다. 이외 메타버스·NFT(대체불가토큰)·블록체인 관련 투자 정보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김경호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메타버스가 기존의 홈페이지·MTS(HTS), MTS 플랫폼들을 흡수해 또 다른 투자 생태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저성장 시대...민을 건 ‘BBIG’

코스피 내 시총 비중 26.2%
순익 비중 2배↑ ‘수익 개선’

내년 저성장 우려감이 일면서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성장주로 꼽히는 ‘BBIG’ 업종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26.2%로 반도체(24.3%)를 넘어섰다.

업종 규모 상위 기업을 봐도 성장주가 차지하는 영역이 커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BBIG 업종 기업들의 비중은 21.6%로 반도체(25.0%)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2차전지 6.7%, 바이오 5.3%, 인터넷 7.3%, 게임 2.4% 순으로 많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성장성이 높은 기

업들에게 좋은 환경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전세계 기업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환경과 현재 할인율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성장이 희소해지는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낫다는 평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도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안소는 KB증권 연구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일단은 성장주에 강세”라며 “과거 델타변이 확산기와 비교 시 가치주 대비 정보통신기술(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성장주의 상대 성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BBIG 업종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점차 수익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2차전

자·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의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은 6.5%로 지난해 3.2%서 비율이 두배 가량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BBIG의 순이익 비중에 대해 2022년 7.3%, 2023년 7.4%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금리 상승 우려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단기적으로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첫 기준 금리 인상을 늦출 거란 전망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불리하고 금리 민감도에 영향을 받는 기업도 나뉘는 만큼 ‘육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의 가치 하락이 크다”며 “같은 성장주 카테고리 내에서도 듀레이션과 이익 증가율에 따라 매력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미래에셋證 ‘ISMS-P’ 인증 취득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14년 국내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010년 국제인증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27001) 인

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ISMS-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였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로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활동이 102개 인증기준(384개 점검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윤성범 미래에셋증권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금융 디지털 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고객정보의 안전 보장을 통해 더욱 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첨단소재 합병법인’ SK, 글로벌 1위 도약 시동

**SK머티리얼즈와 합병법인 출범
배터리·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025년까지 핵심기술 5兆 투자**

SK㈜와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 법인 SK㈜가 1일 공식 출범한다. 8월 합병 추진 발표 후 약 4개월 만이다. 합병법인은 SK㈜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과 SK머티리얼즈 첨단소재 분야 사업 경쟁력을 결합해 글로벌 첨단소재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합병법인의 신주는 이달 27일 상장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첨단소재 기업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배터리 소재 △전력·화학물반도체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4가지 영역에서 발 빠른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점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SK㈜는 투자자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첨단소재 분야에 총 5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SK㈜는 우선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Watson)에 투자해 확보한 배터리 핵심 소재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차세대 음극재, 양극재 분야에도 지속해서 투자한다.

음극재 분야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미국의 그룹14(Group 14 Technologies)와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CNT(탄소 나노튜브) 도전재 등과 같은 고성능 음극용 부재료 영역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차세대 양극재 소재 시장에서도 SK㈜는 중국의 베이징 이스프링(Beijing Easpring Material Technology)과 합작법인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SK㈜는 차세대 반도체인 전력·화학물 반도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SiC(실리콘카바이드) 배터리의 전력·화학물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 주파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 SK㈜는 5G 통신, 자율주행 등의 핵심 소재인 질화갈륨(GaN) SiC 반도체, VCSEL 등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웨이퍼부터 칩에 이르는 전기차용 반도체 풀 밸류체인(Full Value-chain)도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 영역에서도 증설과 신규 사업 확장 투자를 진행 중이다. 주력 제품이 자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삼불화질소(NF3)를 비롯해 모노실란(SiH4) 등 특수 가스와 벌크가스 생산시설 증설에 1조 원을 투자하고 연간 생산 역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첨단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소비 전력이 적은 CIS(CMOS 이미지 센서)용 소재 등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소재 영역에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블루 발광층 핵심기술 기반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후 고난도 소재로 사업을 키울 계획이다. 현재 발광 효율을 개선한 차세대 OLED 소재, 반도체 소재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회로 소재와 미세광학 소재를 개발 중이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소재 영역은 고도의 경영전략과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분야”라며 “SK㈜는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핵심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제네시스가 공개한 G90 완전 변경 모델의 외장 디자인 모습. 사진제공 제네시스

럭셔리 디자인의 정수... 제네시스 'G90' 확 달라졌다

**완전 변경 모델 외장 첫 공개
이달 중순부터 판매계약 돌입**

제네시스는 G90 완전 변경 모델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12월 중순 계약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G90은 세단

과 룽휠베이스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며 차량의 상세 사양은 계약 시작 시점에 공개된다. G90은 2018년 부분변경 모델 출시 이후 3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로 제네시스 럭셔리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제네시스는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 △럭셔리 세단의 인상을 주는 파라볼릭 라인과 개방감을 고려한 포물선 형태의 라인(DLO)이 조화를 이룬 측면 부 △얇고 긴 두 줄의 리어램프와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의 후면부로 G90의 외장 디자인을 그려냈다. 유창욱 기자 woogi@

코오롱플라스틱, 글로벌 판매망 확대 '광폭행보'

**獨·인도 이어 美 무역법인 설립
전기차·수소차용 소재 전환 속도**

코오롱플라스틱이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코오롱플라스틱은 최근 미국에 'KOLON PLASTICS USA, INC' 법인을 설립했다. 무역업을 담당한다. 코오롱플라스틱은 이 법인을 미국 내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법인은 생산 기지는 아니고 판매만 하는 법인”이라며 “마케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플라스틱은 앞서 해외 무역 법인을 잇달아 설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왔다. 2분기에도 독일(KOLON PLASTICS EUROPE GmbH)과 인도(KOLON PLASTICS INDIA PRIVATE LIMITED)에 지사를 설립했다. 각각 유럽과 인도의 마케팅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부품용 수요의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마케팅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3분기 코오롱플라스틱의 영업이익은 112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보다 1만3603%, 전 분기와 비교하면 36% 늘었다.

코오롱플라스틱은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용 소재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란 일반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금속 성질에 가까우면서도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에 이 제품을 적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무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전망이다. 코오롱플라스틱은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EV6·G80·e-트론, 직접 운전해보세요”

서울모빌리티쇼 전기차 시승체험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12월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차량의 전동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아, 아우디, 제네시스 총 3개 브랜드의 전기차와 신차 등 총 22개 차종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킨텍스 일대의 시승코스



기아 'EV6' 시승 차량. 를 도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승 참여는 기아와 아우디는 전시장 부스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를 하고 제네시스는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아 시승장에서는 브랜드 최초 전용 전기차 'EV6'를 만나볼 수 있다. 시판을 앞둔 EV6 GT 5대, EV6 롱레인지 어스 3대 등 총 8대의 시승 차량이 마련됐다. 제네시스 행사장에서는 전기차파이드 G80을 포함한 제네시스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시승은 약 20분간 진행되며 운전자 포함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네시스 GV60 사운드 시스템인 '뱅앤울루슨' 사운드 체험 기회도 준다. 아우디 시승장에는 e-트론 스포트백 50 쿼트로 등 총 15종의 시승 차량이 마련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라 'CEO 중심' 책임경영 홀딩스 총괄사장에 홍석화

**지주사·車·건설 체제 전환
만도 CEO에 조성현 사장 선임**

한라홀딩스가 만도 CEO에 조성현 사장을 임명하는 등 'CEO 중심 성장 경영'을 기조로 하는 임원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한라홀딩스는 지주사와 자동차·건설 섹터(Sector) 체제로 전환해 계열사 CEO가 민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담하게 변화하는 한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라홀딩스 사업부문 최경선 부사장, HL클레무브 윤희주 부사장은 사장(CEO) 승진 발령을 받았다.

만도 조성현 사장은 만도 3개 BU(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HL클레무브, 만도브로제 등 제조업 분야를 총괄 관장하는 자동차 섹터장을 맡았다.

한라홀딩스 지주 부문과 사업부문을 두루 관장하는 총괄사장에는 한라홀딩스 홍석화 사장(CEO)

이 선임됐고, 한라 이석민 사장(CEO)이 건설 섹터장으로 임명됐다.

한라그룹은 섹터장을 구심점으로 CEO 중심 성장 경영을 펼치는 한편 제조업, 건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기존 섹터와 차별화된 영역은 물론 스타트업 투자 등 인organic(Inorganic) 성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 목적으로 그룹 CTO 겸 자동차 섹터 모빌리티 솔루션 테크 그룹 리더에 만도 최성호 부사장이 발탁됐고, 만도 브레이크 BU장으로는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 개발 전문가인 박도순 부사장이 선임됐다.

한라 김선준 전무, 만도 배홍용 전무, 만도 장관삼 전무, HL클레무브 강형진, 오세준 전무는 부사장에 승진 발령을 받았다.

정몽원 회장은 한라홀딩스 회장, 그룹 CHR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로서 민첩하고 젊음이 가득한 한라그룹을 만들기 위해 신사업 개척·투자과 인재 발굴·양성에 집중하며 새로운 영역의 성장에 전념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홍석화 총괄사장, 조성현 CEO

한화인텔리전스 출범... 車전장 공략 본격화

**한화시스템-트루윈 합작법인
적외선·MEMS 센서 개발·생산**

한화시스템과 차량용 센서업체 트루윈의 합작법인인 '한화인텔리전스'가 29일 창립 기념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양사는 최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트루윈 사업장 용지에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반도체 팹 설비를 구축했다.

한화인텔리전스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나이트비전의 핵심 부품인 IR(적외선) 센서와 차량용 MEMS 센서를 전문으로 개발·생산한다.

성능 테스트 등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4분기에 열화상 카메라의 부품인 QVGA(320 x 240 픽셀 해상도)급 열영상센서부터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차량 전장 센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인텔리전스 창립 기념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시스템

윤석은 한화인텔리전스 대표이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 안에서 탄생한 한화인텔리전스는 반도체 기반 핵심센서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차량용 나이트비전은 물론, 모바일 기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센서를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내년 수입금지... 폐플라스틱 몸값 치솟는다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플라스틱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폐플라스틱 가격은 대부분 품목에서 상승했다.

압축 페트(PET) 전국평균 가격은 kg당 337원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12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211원)과 비교하면 59.7% 올랐다.

압축 폴리에틸렌(PE) 가격도 전월 대비 17원 오른 407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69원) 대비 51.3% 상승했다. 압축 폴리프로필렌(PP)은 전월 대비 9원 오른 376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40원) 대비 56.7% 올랐다.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폐플라스틱 가격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주로 수입해 활용해 왔다. 한국산 플라스틱의 경우 품질이 낮아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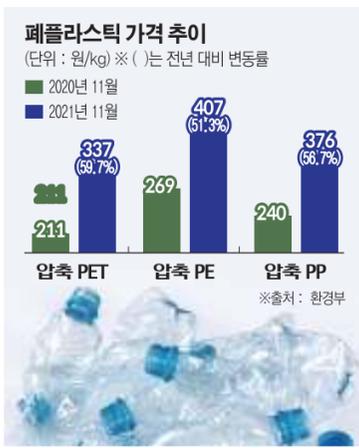
하지만 정부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환

압축페트 등 가격 50% 이상 경증 업계, 열분해·해중합 기술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적극 모색

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페트 등 4종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고, 내년부터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의 폐플라스틱 관련 규제도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수급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기존에 활용하던 기계적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재활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계적 재활용 공법은 폐플라스틱을 잘게 분쇄한 뒤 세척·선별·혼합 등 단순한 기계적 처리 공정을 거쳐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료인 폐플라스틱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재활용을 거듭할수록 더욱 질이 나빠져 재활용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화학적 재활용 공법은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하고 분리·정제 공정을 통해 기존의 원료 형태로 되돌려 재활용한다. 폐플라스틱이 저품질이어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저품질인 한국산 플라스틱에 걸맞은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열분해'와 '해중합'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산소가 없는 반응기에 넣고 반응기 밖에서 열을 가해 분해하는 기술로 화학적 재활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해중합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잘게 쪼개 플라스틱의 기초 재료를 만드는 기술이다.

SK지오센트릭은 2025년까지 재활용 사업 등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연 90만 톤(t)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설비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 파트너링 업체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을 강화했다. 12일 캐나다 루프인터스트리와 미팅을 시작으로, 14일 미국 브라이트마크, 16일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를 방문했는데 이 업체들은 각각 해중합, 열분해, 고순도 PP 추출법 등의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 2공장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11만 톤 규모의 C-rPET공장 신설하기로 했다. C-rPET는 페페트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다숨 기자 citizen@

LG전자, 충남 당진시에 '피크 저감용 ESS' 구축

LG전자가 국내 최대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이어 '국내 최대 피크 저감용 ESS'를 잇따라 구축하며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충남 당진에 있는 KG동부제철 당진공장에 단일 현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 피크 저감용 ESS를 구축했다. 피크 저감용 ESS는 전기 사용량이 적고 전기 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에 방전해 공장 전기 요금을 낮춰준다.

이번에 구축된 ESS는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게 되며 향후 15년간 약 960억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배터리 용량 174.7메가 와트시(MWh),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40메가 와트(MW)의 대규모 피크 저감용 ESS를 구축했다. LG전자는 PCS, 전력관리 시스템(PMS), 배터리 등 ESS의 핵심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에 이르는 ESS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한국토요타는 직접 만든 김장 김치를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오른쪽부터)올해 김장 행사에 나선 다케무라 노부유키 사장, 김형준 이사, 나카하라 도시유키 한국토요타 상무. 사진제공 한국토요타

'인재육성·친환경' 한국토요타가 앞장

전국 7개 자동차 기술대학과 MOU 학생들에 선진기술·현장비결 공유 '친환경 농법' 재배 농작물 기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한국토요타의 사회공헌은 오히려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30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최근 자동차 시장의 위축기 속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년 사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7%에서 0.1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토요타의 사회공헌은 크게 인재육성과 친환경으로 이어진다. 먼저 자동차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교육 프로그램 'T-TTEP'을 추진 중이다. TOYOTA Technical Experience Program을 의미하는 T-TTEP을 통해 전국 7개 자동차 기술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앞세워 다양한 선진 기술과 현장 비결을 학생들과 공유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차량 기술 교육을 위해 렉서스의 대표 하이브리드 차량인 ES 300h를 비롯해 토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HEV)와 아발론 하이브리드(HEV) 등 하이브리드 모델 6대와 기술린 모델 2대 등 총 8대 차량을 각 대학에 기증했다.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은 '토요타 주말농부'가 대표적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다. 수확 농작물의 일부는 소외계층과 나누고 연말에는 김치를 담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고객도 함께할 수 있는 한국토요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올해(2021년)는 행사 규모를 키웠다. 전국 16개 토요타·렉서스 딜러사 임직원들도 함께했다. 직접 만든 김장 김치를 각 지역 보육원과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했다.

2021 토요타 주말농부 참가자들은 환경을 생각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 식물을 심고 키우는 △지속 가능한 지구 텃밭 △쓰레기제로 △한 평의 사랑 나눔 등 3가지 주제로 '2050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임무를 함께했다.

2018년부터는 젊은 농부를 지원 중이다. 젊은 농부 '영 파머스(Young Farmers)'들과 MOU를 맺고, 전국 각지의 젊은 농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 중이다. 영 파머스들이 재배한 농산물은 서울 잠실에 자리한 한국토요타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의 음료와 디저트로 활용한다.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영파머스의 계절 음료와 그와 어울리는 신선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디저트들은 고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드립니다

한국투자 증권

유럽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 압박... SKB에 힘 실린다

유럽 13개 통신사, 부담 요구
글로벌 빅테크 지급 논의 주목
넷플릭스 "못 낸다" 입장 고수
SKB 법정 공방서 유리할 듯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일종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업계도

세계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이체텔레콤, 보다폰 등 13개 유럽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 IT 기업에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13개 통신사 CEO는 "유럽연합(EU) 시민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하여금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업 모델은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늘어나는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도다. 지난해 유럽 통신 분야 투자 규모는 약 525억 유로(약 71조 원) 규모로

늘어 6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이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브랜든 카는 지난 5월 "빅테크가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인터넷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빅테크의 망 사용료 관련 논의는 한국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넷플릭스는 "세계 어디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ISP에 트래픽을 줄이는 자체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OCA를 활용하고 있는 북미·유럽 지역에서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업계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빅테크와의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만큼 해외에서도 소송이나 협상 과정을 주시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에 힘이 실릴 것이라 예측도 제시됐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구글 등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망 사업자 통신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최근 OTT 서비스가 몇 년 새 증가하면서 트래픽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슈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소 수출액 최고... 화장품·반도체 장비가 '효자'

1052억달러 돌파 역대 최고
진단키트 등 의약품 급성장

올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기존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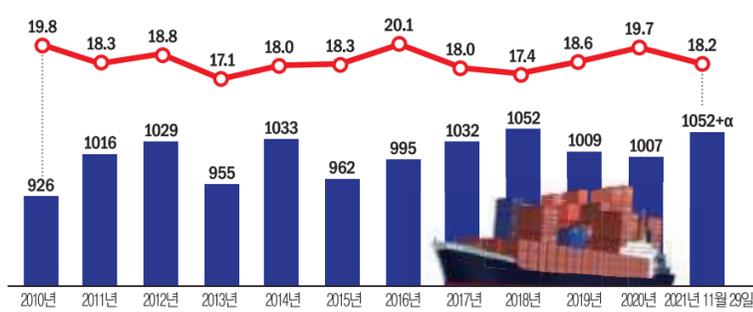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29일 국내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105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8년 1052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009억 달러, 2020년 1007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에는 반등세를 보이며 11월 말에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까지 한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수출 저변을 확대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0년 10월 7만4851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수는 올해 10월 8만7019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수출액은 752억 달러에서 953억 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이 기간 수출 벤처기업 수(벤처기업확인서 기준)는 9497개로 42%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벤처기업 수출 품목 중에선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작년부터 1위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해왔다.

같은 기간 10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378에서 1834개로 확대됐다. 이들 기업의 수출액 규모는 499억 달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수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품목은 화장품과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등이다. 화장품은 한류열풍과 K뷰티의 인기로 힘입어 2위(4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년 전 수출 품목 62위였던 화장품은 10년 사이 2위로 급성장했다. 반도체 제조장비(33억 달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따른 장비 수요 급증에 5위에 올랐다. 의약품도 코로나19로 진단키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8억2000만 달러로 6위를 보였다. 두 품목 모두 10년 전보다 약 4배가량 성장했다.

성장률은 가공식품과 자동차 수출 품목에서 컸다. 가공식품은 K푸드 열풍에 10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자동차에선 전 기차가 2017년 첫 수출 4년 만에 2201%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과거와 비슷했다. 다만 올해는 독일이 진단키트 수출 증가로 7위까지 뛰어 올랐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부서장도 가능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강화

앞으로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임원이 아닌 부장급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 차원이다. 그동안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했다.

우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를

가진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해 모호한 '임원급'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 기업을 '중기업' 이상으로 개선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했다"며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해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

교육업계 '에듀테크' 경쟁... AI 인력 확보에 사활

교원·웅진씽크빅 등 AI 분석
디지털 학습지에 집중 투자

교육업계가 인공지능(AI) 분석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앞다퉀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야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산학협력 등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AI 분석 기반 디지털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를 선보인 교원그룹은 서비스 개발에만 내·외부 35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매년 200억 원 이상 에듀테크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해오다 올해는 투자 금액을 330억 원까지 늘렸다.

AI 기반 학습 플랫폼 '스마트울'로 지난 3분기 실적도 순항한 웅진씽크빅 역시 에듀테크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9년과 지난해 각각 288억 원, 299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35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31건의 에듀테크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웅진씽크빅 AI 기반 학습 플랫폼 '스마트울'과 교원그룹이 지난 10월 론칭한 디지털 학습지 '아이캔두'. 사진제공 각사

AI 기반의 수학 플랫폼 '닥터 매쓰'를 선보인 천재교육은 2015년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천재교육에듀테크센터'를 설립

관련 분야 스타트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사무 공간 대여와 컨설팅 제공은 물론, 현금 투자도 일부 제공한다. 지금까지 센터를 거쳐 간 기업만 21개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인재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특히 교육업계를 넘어 IT·스타트업에 전방에 AI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업계 관계자는 "AI 인재를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장기적인 인력 확보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분야가 6~12개월 훈련해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최소 석사 이상은 돼야 해 현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직접 산학 협력에 나서고 있다. 교원그룹은 올해 4월 동국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에듀테크 분야 R&D와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웅진씽크빅도 10월 성균관대학교와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문현일(왼쪽)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사업담당과 김민우 호두랩스 대표가 지난달 29일 '호두랩스'와 양방향 독서 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놀이하듯 공부하는 어린이 화상교육

LGU+ '아이들나라'서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호두랩스와 업무 제휴를 추진했다.

LG유플러스가 내년 상반기 아동 전용 미디어 플랫폼 'U+아이들나라'를 통해 양방향 화상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호두랩스 화상 교육 솔루션을 활용해 U+아이들나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양방향 화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놀이하듯 교육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화상 교육 솔루션 전문 기업 '호두랩스'와 양방향 화상 서비스를 위한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현일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사업담당은 "책 읽어주는 TV, 영어유치원에 이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더욱 고도화되고 차별화된 양방향 교육 서비스 출시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키즈맘·키즈대디도 U+아이들나라의 전편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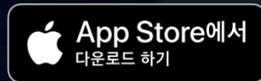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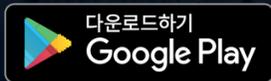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집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위해
집요하게 뭉쳤다!



집요한 부동산 정보 KB부동산



시세정보
실거래가, KB시세, 공시가, 시에측시세까지 입체 분석

매물정보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찾기

입지정보
역세권, 학세권, 스포츠권, 의세권 등 다양한 입지 분석

내집내집
실거래 알림, 매물 알림, 예산정보 등 부동산 자산관리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으로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홈페이지(http://kbland.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158호(2021.11.23) 광고물 유효기한 2022.6.30 까지

“온라인 더 키운다” 식품업계 ‘자사몰’ 매출·회원수 증가

hy ‘프레딧’ 매출 48% 뛰어
CJ제일제당 ‘더마켓’ 25% ↑
비대면 소비 늘며 거래 증가
외부 채널과 차별화 과제로

가입자 수가 40만 명 증가해 누적 회원 수 280만 명을 돌파했다. 할인, 신상품 체험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유료 회원 ‘the 프라임’ 회원 수도 1.5배 이상 늘었고, 지난 1년 동안 매출도 25% 이상 뛰었다.

지난 6월 새로 문을 연 롯데제과의 ‘스위트몰’ 역시 성장세다. 월간과자, 월간 아이스 등 과거 구독 서비스 등을 앞세운 스위트몰은 오픈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6만 명의 고객을 확보,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수능, 빼빼로데이 등 이벤트가 있던 10~11월에는 각각 1억, 2억 원의 월 매출을 달성했다.

자사몰 육성에 공들이는 배경엔 코로나 이후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주요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8조226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3%다.

새롭게 끌어들이는 고객이 곧 기업 고유의 데이터로 전환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업계가 구축한 자체 플랫폼 내에서 고객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누적 데이터가 쌓여 향후 사업 모델을 세우기 용이하다. 동원몰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 열풍에 힘입어 식품업계가 문을 연 자사몰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고객을 자체 유통채널로 끌어들이며 외부채널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는 디지털 특화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사몰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 1년 동안 식품업계의 자사몰 회원 수, 매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y가 운영하는 자사몰 ‘프레딧’의 가입자 수는 10월 누적 기준 1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 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주문 건수는 약 173만 건, 매출액은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 48% 늘었다.

CJ제일제당의 ‘CJ 더마켓’도 같은 기간

업체(자사몰)	오픈시기	가입자 수	실적현황
hy(프레딧)	2020년 11월	100만 명	올해 10월까지 매출액 610억 원, 전년비 43% ↑
CJ제일제당 (CJ 더마켓)	2019년 7월	누적 회원수 280만 명	전년비 매출 25% 이상 증가
동원F&B (동원몰)	2007년 8월	올해 115만 명	연간 주문량 100만 건, 향후 AI커머스 플랫폼 도입
롯데제과 (스위트몰)	2021년 6월	약 6만 명	11월 월매출 2억 원 달성

인공지능(AI) 기반 커머스 플랫폼 구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카카오프라이즈와 업무협약을 맺은 동원몰은 식품물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령 생수를 자주 사 먹는 고객에게 재고가 떨어질 때 짬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남은 과제는 기업별로 자사몰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다. 식품 자사몰을 사용한 적 있는 소비자라도 SSG닷컴, 쿠팡 등 타 온라인 채널에서도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차별화 전략에 나서야 한다.

동원몰은 AI 기술 역량 투입에 집중한다. 새로 도입한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는 판매량과 공급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밀키트와 우유 등 유통기한에 민감한 제품은 AI가 재고량을 확인해 알아서 가격을 낮춘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제조사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제품을

줄일 수 있다.

프레딧은 hy의 전매특허 ‘프레시 매니저’ 연계 서비스와 ‘야쿠르트’를 앞세운 정통 구독서비스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필품 등 정기구독 성격이 짙은 제품군을 위주로 상품 카테고리 재편했고 올해 지역소상공인 과 프레시매니저 연계 판매 서비스인 ‘프레시 매니저 픽’을 신규로 론칭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 강화를 위해 최근 롯데쇼핑 내 전자상거래 담당 전략통으로 통하던 김현진 전 플랫폼센터장, 임현동 전 롯데쇼핑 상품부문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자사몰 CJ 더마켓도 더 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객을 계속 붙잡는 ‘록인 효과’를 위해 업체들의 ‘물량공세’도 눈에 띈다. hy는 지난해 10월 기준 385건에 그쳤던 보유 제품군을 1년만인 올 10월 1214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CJ더마켓은 자사 제품을 포함해 약 1000여 종을, 동원F&B가 운영하는 동원몰은 식자재뿐만 아니라 생활, 주방용품까지 약 13만여 종의 제품을 팔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마트 성수점 내 딸기 매장서 한 고객이 딸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토종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 유럽 9개국 공급 계약

셀트리온, 연내 5만명분 출하
EC 승인 후 협상 진행 국가 급증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성분명 : 레그단비랍)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공급 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전 세계 56개 국가들과 ‘렉키로나’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9일 기준 유럽 내 9개 국가와 ‘렉키로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동 계약에 따라 초도물량 15만바이알(vial, 5만명 투여분)은 올해 안에 출하될 계획이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 및 초도물량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해 연내 추가 발주가 지속될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나머지 47개 국가들과도 ‘렉키로나’ 수출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초도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국들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에 속한 국가로서 이들 외에도 ‘렉키로나’



공급에 대해 문의하는 국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등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점 역시 ‘렉키로나’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주 전 대비 11% 늘어난 약 243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글로벌 신규 확진자의 67%에 해당한다. 특히 WHO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위된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통해 유럽 규제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은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라는 점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렉키로나’가 국내에서 실제 처방이 이뤄지며 축적된 처

방 데이터 및 최근 정부에서 확대 사용을 권고한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는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11월 25일 기준 134개 병원의 2만 5,209명 환자에게 투여되면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의 항체치료제 확대 공급 결정에 따라 ‘렉키로나’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내 중증·중등증 환자에게까지 투여 대상이 확대된 만큼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줄 환자 처방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신뢰도 상승을 통한 글로벌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이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렉키로나’가 CHMP 승인 권고 이후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정식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회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의료 부담 완화를 이끌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 공급 계약 및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노벨상’ 만든다

국제백신연구소와 ‘박만훈상’ 운영
매년 2억 출연... 내년 4월 첫 시상

SK가 국제기구와 손잡고 매년 세계 백신업계에 의미있는 공적을 세운 인물과 단체를 수상하는 ‘백신 노벨상’을 만든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와 함께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 박만훈 부회장의 연구개발 업적을 기리며 백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국내외 인물 및 단체를 선정해 수상하는 ‘박만훈상’을 운영하고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박만훈상’을 백

신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정례화하고자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등 8명 이하의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고 업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추천받아 심사해 시상하기로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년 2억원의 상금을 출연하며 첫 시상선 고 박만훈 부회장의 타계 1주기인 내년 4월 25일 이뤄진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 고인의 부인 이미혜 여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고 박만훈 부회장의 유가

족은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와 보성고등학교에 ‘박만훈장학기금’을 전달해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박만훈 부회장은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장티푸스 백신 등 혁신적인 백신의 개발을 주도하며 세계보건을 위해 크게 공헌한 백신업계의 선구자였다”며 “그의 유산을 기억하고 백신 리더를 양성하며, 세계보건을 위한 백신 개발의 촉진을 위해 박만훈상을 백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국내 백신 연구 분야에 한 획을 그은 박 부회장의 열정과 소망이 백신 산업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들에게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신라호텔 한식당 라면 ‘라 리스트 2022’ 선정

佛 주관 미식 가이드 2회 연속

서울 신라호텔의 한식당 라면이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라 리스트 2022’에서 한국 최초로 2회 연속 150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한식당 라면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무성 관저에서 열린 ‘라 리스트 2022’ 공식 행사에서 한국 레스토랑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4.5점을 획득하며 톱(TOP) 150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2017년 한국 최초로 톱 500에 선정된 후

2018년 톱 200, 2019년 톱 150에 선정되는 등 순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식 행사가 취소되면서 2년 만에 새로운 리스트가 발표됐다.

서울신라호텔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콘텐탈’과 일식당 ‘아리아케’도 3회 연속 톱 1000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라면의 김성일 셰프가 ‘라 리스트 2022’의 특별상 부문인 ‘장인 & 진정성 상(Artisan & Authenticity Award)’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양도세 생색내기 완화...거래절벽 허물지 의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시장 반응은

여야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주택 거래를 아우르는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억 아파트, 양도세 1.1억→7793만원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2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분을 충분

주택 상승분 충분히 반영 못해 집값 '12억 키 맞추기' 우려 "보유세 등 완화로 숨통 트여야"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 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3823만 원 줄어든 7793만 원이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됐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미미하다. 사진은 서초구의 한 부동산 업체.

만 얼어붙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녹이기에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도 대기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2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현행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매물을 내놓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1주택자 양도세 완화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 등 유연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양도세를 완화해도 수수료 등 거래비용 부담으로 매도를 택하는 1주택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안

기준	변경안
고가 주택 및 고가 입주권 가격기준: 9억 원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시설물 이용권, 주식, 출자 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서희회장은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에 맞춰진 주택의 거래가격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비과세 혜택이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매물 잠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욱 기자 toto@

‘분상제 족쇄’...둔촌 주공 등 발목인 수도권 분양 대어들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 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 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0여 건 중 실제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이 8500여 건에 그쳐 분양 목표치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피아크 에비뉴포레'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총 1만2032가구)의 일반 분양 일정이 또다시 지연됐다. 둔촌주공은 애초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갈등으로 1년째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이 단지는 연내 분양이 예측됐지만, 증액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간 갈등이 불거져 또다시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조합원 측은 내년 2월께 일반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둔촌주공과 시공단 간 공사비 갈등 문제는 지난해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를 기준 2조6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대로 5244억 원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둔촌주공 전 조합장 A 씨와 체결한 것인데, A 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조합원은 총회 의결 없이 계약서를 날인했고, 증액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공단 측은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 측은 1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일반 분양 일정을 내년 2월로 계획 중이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전면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등은 분양가 갈등으로 일반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잠실진주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 분양가 인상을 기대하며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고, 하반기에 일반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베르몬트로 광명은 분양가 상한제 심의 결과 분양가 상한이 3.3㎡당 2000만6112 원으로 책정되자 조합은 이에 반발해 내년 재심의를 선택했다.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는 "내년 3월 변경된 공시지가가 나오

면 분양가 재심의를 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서초구 방배5구역 (2796가구), 방배 6구역 (3080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 (1971가구) 등에서도 연내 분양을 계획했다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올해 분양 대어로 기대됐던 단지들의 분양이 내년으로 밀리면서 올해 아파트 공급 계획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영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39만여 가구였지만, 실제로는 29만5700여 가구가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됐다. 박미선 기자 only@

재건축 불씨에 집값 활활...주목받는 안산

군자주공11·12단지 본격 철차 월피현대2차도 순조롭게 진행 멸실 증가로 추가 상승 가능성

아파트 재건축 훈풍이 경기 안산시에 불어 닥쳤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안산시는 여전히 부동산 불장(불값이 뜨거운 상승장)인데다 입주 물량도 부족해 추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군자주공11·12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기준 온라인 카페에는 약 770여 명이 모였다. 군자주공 11단지과 12단지는 각각 1990년과 1991년 지어져 올해 재건축 연한(30년)을 갓 넘긴 아파트다. 11단지는 1190가구, 12단지는 1620가구로 총 2810가구 대단지다. 이 밖에 상록구 월피동 월피현대2차 아파트도 올해 초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안산시 내 주요 노후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 1월 군자주공9·10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준비해 이르면 다음 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15개 단지로 구성된 군자주공 단지 중 1~8단지는 재건축을 완료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상록구 성포동 현대1차 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역시 한차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탈락 이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안산시 주요 노후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뛰어드는 이유는 최근 안산시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 수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안산시 아파트값은 지난달보다 1.75% 상승했다. 상록구는 2% 이상 뛰었

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1.28%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재건축 사업 순항으로 집값도 우상향하고 있다. 선부동 군자주공12단지 전용면적 44㎡형 시세는 3억9000만 원이다. 지난달 20일 거래된 3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더 올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군자주공10단지의 경우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한 건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며 "안산시 내는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투자 문의가 많아 매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시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것도 이 일대 아파트 몸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재건축 단지의 이주 물량으로 안산시 내 전세와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신안산선 착공 등으로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입주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안산시 입주 물량은 1450가구에 그쳤다.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한 건도 없고, 2023년에야 2163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연간 안산시 내 적정 아파트 수요량은 3270가구로 입주 물량보다 많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고가·저가 아파트 격차 역대 최대

지난달 5분위 배율 최고 기록 매매·전세 모두 양극화 심화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 모두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심화했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가 9.3, 전세가 7.4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9.3배, 전셋값은 7.4배 높다는 의미다. 이는 2008년 12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11월 전국 1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1억 2575만 원으로 전월보다 257만 원 떨어졌다. 반면 5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11억 6743만 원으로 6136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분위가 123만 원 오르는 데 그쳐 평균 8835만 원이었지만,

5분위는 2891만 원 상승해 평균 6억5082만 원에 달했다.

매매·전세 시장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하위 20%보다 훨씬 큰 것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매매의 경우 11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1로 지난달과 같았지만,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와 기타지방은 각각 5.7, 6.5로 나타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4.3)도 조사 시작 이래 5분위 배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4.2)도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전월 대비 5분위 배율 수치가 올랐다.

전세의 경우에는 서울(3.9), 5대 광역시(4.9), 기타지방(6.2)에서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은 아파트 시장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전국적으로 전체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의 5분위 배율은 매매 8.7, 전세 7.0으로 전월 8.9, 7.0과 비교해 더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檢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 오늘 광상도 영장심사

‘화천대유 50억 원’ 수령액 성격 퇴직금 아닌 알선 대가 입증 관건 영장 기각 시 부실수사 비판 직면 박영수·권순일 등 수사도 진행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광상도 전 의원이 구속기소에 섰다. 광 전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에 남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수사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광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광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광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의심한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기재됐다. 검찰은 광 전 의원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25억 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 전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청구도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고,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 전 의원은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광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의 성격이 퇴직금이 아닌 알선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은 영향

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팀은 부실 수사 비판에 또다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을 마주한 바 있다.

특히 수사팀은 대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 씨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쳐 낙장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 전 의원을 27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를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 압박에 밀린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광 전 의원의 주거지, 하나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

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광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 수사는 동력을 얻는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적십자 ‘사랑의 나눔레터’ 30일 인천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 직원들이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12월 1일~내년 4월 30일)을 앞두고 지로 용지와 ‘나눔레터’를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눔레터는 지로 용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제작한 기부 편지로, 지로 납부 대신 계좌이체 등으로 회비를 내는 방법이 담겼다. 연합뉴스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적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론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인 30일 오후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의자가 수사

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용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채용취소 통보’ 청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나온다

국무조정실, 17건 개선안 발표 손해배상 금액 1억→2억 상향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청년 구직자가 취소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무료 법률서비스가 지원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자간회의를 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 17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 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

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사 측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 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하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사실상 없애기로 해 무제한으로 휴학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 한다는 점을 약화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원센터·상담창구·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벽도 더 단단히 한다.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세종=박병법 기자 riby@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檢,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

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구속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 씨는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구예지 기자 sunrise@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판결 사유 미공개는 부당”

경실련, 특례 폐지 촉구

민사소송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1심 민사사건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1심 민사본안사건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

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보통 6개월을 기다리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고작 30분 검토한 이유 한 줄 적지 않은 판결문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신속한 재판의 편익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전제됐을 때 비로소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특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규칙에 위임돼 행정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는 소액사건 금액 기준은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공공일자리 계약·이력 관리 ‘서울지갑’으로 한번에”

서울시, 2022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 선정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일자리 이력 관리가 더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자와 관리자를 위한 표준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도시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저장을 통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 도시와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자 할 때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이용하면 본인이 누구임을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엠보팅’,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 비대면 자격검증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나해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울시

분산저장으로 데이터 위변조 방지
엠보팅·비대면 자격검증 등 운영
근로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 구현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올해부터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울디지털재단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의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근로이력이 관련근무 경력을 보여주지 때문에 취업과 연계돼 중요하다. 기존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근무처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종료되면



서울지갑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화면.

사진제공 서울시

업무담당자나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 증명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이런 불편을 해결했다.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간편하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신청절차나 담당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경력증명서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백수진 서울디지털재단 선임은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위해 물리적 미팅과 안내 등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비됐다”며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재발행, 경력 증명서 작성 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백 선임은 “100명 이상 많은 근로자와 계약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 대량 전자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공공일자리 이력관리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 근로계약서를 직접 등록하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근로경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민간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에서 받은 근로 경력도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근로계약 데이터와 근무이력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문서화한 경력 증명서의 제출 등을 위해 현재 다양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도 공공마이데이터와 결합해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계약과 전자화된 시스템 구현으로 위변조 방지, 진본 확인이 가능한 급여, 근태, 경력 등의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도 구현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교육플랫폼〉

오세훈 “서울런 멘토링 사업 적극 지원”

학부모·멘토·멘티와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으로 온라인 맞춤형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졌지만 온라인으로 의미 있는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링크 홀에서 ‘서울런’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 학부모와 ‘서울런 멘토링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서울런 멘토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실제 온라인 멘토링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0일 서울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멘토링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런은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구축한 교육 플랫폼이다. 8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단계

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3년 서울 시민의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런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는 ‘멘토링’이다.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부족할 수 있는 학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려는 방안으로 고안됐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멘토가 온라인으로 학생멘티들의 학습 진도 관리와 진로 상담을 해준다.

오 시장은 “멘토링을 통해 단 몇 명의 멘티라도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다면 그것이 서울런 멘토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교통단속

77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6개소에 설치했고, 올해는 1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41개소에 추

가 신설했다. 관내 26개 초교 주변 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한 대 이상 설치한 것이다.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특수학교)과 노인 보호구역 등 63개소를 조사해 안전표지판을 교체하고 노면 표시 재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구독신청 bravo.etoday.co.kr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매번 나가는 수수료!
평~생 내도 상관 없는 분은

KB증권 IRP

모르셔도 좋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수수료가 평생 무료!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모바일계좌개설
-  ETF, 리츠, TDF까지!
다양한상품 운용
-  30년 후에도 든든하게!
업계 최고 신용등급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5322호(2021년 11월 23일~2022년 11월 22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 발생합니다 *ETF는 총 적립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하기



54년간 1만4000쌍 무료 결혼식

‘LG 의인상’ 받은 백낙삼 씨

경남 마산서 신신예식장 운영
형편 어려운 부부들 예식 지원
부인과 사진·주례·폐백까지
“건강 허락할 때까지 계속할 것”

폐지 모아 학생 도운 박화자 이장
돌진하는 차 막은 안현기 씨도



54년간 무료 예식을 지원해 ‘LG 의인상’을 받은 신신예식장 대표 백낙삼 씨 부부. 사진제공 LG그룹

54년간 형편이 어려운 1만4000쌍 부부에게 무료 예식을 지원한 신신예식장 대표 백낙삼(89) 씨가 30일 ‘LG 의인상’을 받았다.

백 씨는 1967년부터 경남 마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예비부부들이 최소 비용을 들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대부터 10년 넘게 전문 사진사로 일하며 아껴 모은 돈으로 1967년 3층짜리 건물을 사서 예식장으로 운영한 게 시작이었다. 그는 가난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이 없어 식을 못 올리는 예비부부들이 부담 없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진 값 외에는 식장 대관을 비롯한 예식 전반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다.

무료 결혼식을 이어가기 위해 백 씨와 그의 아내 최필순(81) 씨는 80세가 넘는 나이에 건물 관리하는 물론 식장 청소, 주

차까지 모두 직접 챙기고 있다. 백 씨는 사진 촬영뿐 아니라 주례, 예식상담과 사회 등을 맡고 신랑 신부의 옷과 화장, 폐백 등은 최 씨가 도맡아 하는 식이다.

100석 규모의 예식장에서 54년간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는 1만4000쌍이 넘는 다. 1개 예식장에서 하루 동안 17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진기록도 세웠다.

1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끈 영화 ‘국제시장’ 속에도 신신예식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막내 여동생 ‘글순이’의 결혼식 배경이 바로 이곳이다. 백 씨는 이 영화에서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사로 ‘깜짝 등장’했다. 2019년엔 50년 넘게 무료 봉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백 씨는 “저처럼 돈이 없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운영하다 보니 어느덧 50년이 흘렀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예식장을 잘 운영하고, 남은 삶은 아내와 우리가 결혼시킨 부부들이 잘살고 있는지 한 번쯤 가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LG 의인상에는 12년간 매일 폐품을 수집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3리 이장 박화자(60) 씨, 브레이크가 풀려 돌진하던 차량을 본인 차로 막아 대형 인명 피해를 예방한 안현기(24) 씨도 함께 선정됐다.

LG 관계자는 선정 이유에 대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선택한 두 분의 이웃사랑 정신과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막은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나텔라 MS CEO, 회사 지분 절반 판 까닭은

자본이익 세금 부과 앞두고... “머스크 사례와 유사” 분석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텔라(사진)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지분의 절반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의 보유 지분은 이사회가 설정한 요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이 내년 초부터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자본 이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워싱턴주의 정책과 관련 깊다고 설명한다. 회사가 언급한 개인 재무상 이유가 납세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MS 본사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다.

인사이드스코어의 벤 실버맨 애널리스트는 “이번 처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매각과 유사하다”며 “시장 버블을 이용하면서도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하고, 또 세법 변경에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초부유층들은 많은 감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텔라 CEO는 지난주 이틀에 걸쳐 MS 주식 83만 8584주를 처분했다. 처분 추정 금액은 2억8500만 달러(약 3388억 원) 이상으로, 나텔라 CEO의 단일 거래 기준 최대 규모다.

M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나텔라 CEO는 개인 재무 계획과 자산 다각화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약 84만 주를 처분했다”며 “그는 회사의 지속적

타이거 우즈 “풀타임 골퍼 시절은 끝났다”

“사고 후 다리 하나로 병원 나올 뻔 1년에 몇몇 대회 골라 출전할 것”



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선택적 대회 출전을 언급했다. 우즈는 “필드에 복귀해도 풀타임은 못 뛴다”며 “벤 호건이 그랬듯이 일년에 몇몇 대회를 골라 출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가 올해 초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골프 커리어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즈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골프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필드에 복귀하겠지만 더는 풀타임으로 뛰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허리를 다친 뒤에도 에베레스트산을 여러 번 올랐지만 이제 내 몸은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수 없다”면서 현재 몸 상태를 설명했다.

우즈는 2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쳐 지금껏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다리가 낫는다면 골프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시 정상에 오르

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선택적 대회 출전을 언급했다. 우즈는 “필드에 복귀해도 풀타임은 못 뛴다”며 “벤 호건이 그랬듯이 일년에 몇몇 대회를 골라 출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는 사고 직후 상태에 대해서는 다리를 절단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른쪽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났던 그는 “(다리 절단 가능성이) 50대 50이었다. 다리 하나로 병원에서 나올 뻔했다”면서 “병원에서는 내 손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여자친구) 에리카한테 아무거나 던져 주라고 부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남궁훈 게임즈 대표

일동제약 ‘오너 3세’ 윤웅섭 대표 부회장 승진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책임자로 남궁훈(사진) 카카오게임즈 각자대표를 낙점했다.



카카오는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각자대표를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선임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이니셔티브센터는 카카오 공동체의 미래 10년(beyond mobile)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남 대표는 한게임 창립 멤버로 NHN USA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 엔진과 다음게임이 합병하며 출범한 카카오게임즈의 각자대표를 맡아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일동제약이 오너 3세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인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 전략을 가다듬는다.



일동제약그룹은 12월1일 자 임원 인사에서 오너 3세인 윤웅섭(사진)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신임 부회장은 일동제약의 신약 개발 및 R&D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윤 신임 부회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와 조지아주립대학원 회계학 석사를 거쳤다. 2016년 대표 취임 이후 연구개발에 매출의 약 10%를 꾸준히 투자하며 대시질환과 암 등과 관련한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나섰다. 최근에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돌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보령지청장 오세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부 박명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장 정승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과장 김형철 △부동산산업과장 황운안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이기봉 △공간정보진흥과장 이대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백진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정양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용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이운우 △“하천국장 박재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김상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최중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남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박진식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중양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현대해상 ◇임원 전보 △강북지역본부장 박윤정 △중부지역본부장 김도희 △호남지역본부장 김종석 △본부장 전보 △장기업무본부장 백경태 △장기보상본부장 김진형 △AM2본부장 인동인 △재무기획본부장 안성일 △해외사업본부장 홍령 △

기업영업2본부장 김병원

◆DB저축은행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임훈재

◆한라그룹 ◇전무 승진 △김원석(한라홀딩스) △김윤기 △김현욱 △김현준 △박영문 △김규선(이상 만도) △이철(HL클레부) ◇상무 승진 △신현수 △윤종필 △이계찬(이상 한라) △김평용 △남궁주 △남우희 △이윤형 △이진환 △정병후 △정창욱 △최재영 △Bruce Kim(이상 만도) △강상명 △권오진 △양기춘 △정성희(이상 HL클레부) ◇임원(상무보) 선임 △김도형 △김수진 △박태준 △박재우 △문정근(이상 한라홀딩스) △김벽수 △손종현 △오상욱 △윤창영 △홍강표(이상 한라) △김홍선 △박환 △신성호 △신승문 △이권호 △주세웅 △지선종 △최욱진 △김국민(이상 만도) △이형욱 △황준연(이상 HL클레부)

◆KG그룹 ◇KG동부제철 △사장 박성희(대표이사) △전무이사 박종관 △상무이사 이철 △상무이사 하종철 △상무(보) 박정우 △상무(보) 이우석 △상무(보) 조기연 ◇KG케미칼 △상무이사 손재호 △상무(보) 백민재 △이사대우 김익열 ◇KG이니시스 △상무이사 이승국 △상무(보) 조영소 △이사대우 강영권 ◇KG모빌리언스 △상무

(보) 조은경 △이사대우 최현수 ◇KGETS △이사대우 흥천표 ◇이데일리 △전무이사 박혜은 △상무(보) 이상재 ◇이데일리씨앤비 △상무이사 황원진 ◇KG에듀원 △상무이사 이종원 ◇KG동부이앤씨 △이사대우 박상영 △이사대우 장호석 ◇KG지앤에스 △상무이사 권호근(대표이사) ◇KG아이씨티 △이사대우 정철환 ◇KG할리스에프앤비 △이사대우 한내현 ◇KFC KOREA △상무(보) 이현재 △이사대우 이창훈

◆대보그룹 ◇대보건설 임원 승진 △상무 서차원 이준석 △상무보 박성순 강정수 임용규 손덕영 손영운 권오철 김영환 ◇대보실업 임원 승진 △상무보 장상근 ◇대보정보통신 임원 승진 △상무 채승연 △상무보 장호식 천승진 김태근 김대중 ◇대보유통 임원 승진 △상무보 김갑록

◆태영건설 ◇상무 승진 △김진현 심용식 ◇상무보 승진 △구한서 박상준 송진천 여환목 정환수 천호대

◆위메프 ◇임원 승진 △법무대외협력실 실장 김우항

◆한겨레 △허핑턴포스트코리아(유)/씨네플레이씨 대표이사 최태형

◆신아일보 △편집국장 김민철

◆일간투데이 △미디어전략실 광고국장 한명덕

美 메리엄-웹스터 사전, 올해의 단어로 ‘백신’ 선정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2021년 올해의 단어로 ‘백신’을 선정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조회 데이터, 주목할 만한 급증 및 매년 증가하는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백신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선임 편집자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유사하면서

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녔다. 하나는 의학적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또는 문화적 이야기”고 설명했다. CNN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백신)은 희망과 건강의 상징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정치화된 이슈의 대표격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듯 그 단어는 어디에나 있고 논란이 많다”고 전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부음

▲박용귀 씨 별세, 박상섭(롯데면세점 홍보팀장)·종섭(대신증권 리스크관리부)·재영·현영 씨 부친상, 이상진(계명대학교)·현창환(달성축산농협) 씨 장인상, 김채현(중앙고등학교 교사)·유정현(화정중학교 교사) 씨 시부상 = 30일,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04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 30분, 053-200-6464

▲문국환 씨 별세, 문기수(케이론파트너스 대표) 씨 부친상 = 30일, 광주광역시 금호장례식장 201호,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062-227-4000

▲한정진 씨 별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씨 모친상 = 30일, 인천기전대길병원 장례식장 특실 501호, 발인 2일 오전 6시 30분, 010-5650-8740

▲최성업 로시리아 씨 별세, 박종열(한국자금중개 전무이사, 전 한국은행 금융검

사실장) 씨 모친상 = 29일, 전남 보성 우리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61-852-4445

▲이승철 씨 별세, 이민상(미래정책개발원장) 씨 부친상, 김승역(한국디지털미디어고 사무국장) 씨 장인상, 이경진(동아일보 기자) 씨 조부상 = 30일,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 특실,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31-411-4441

▲최영희 씨 별세, 이봉규 씨 부인상, 이종성·종영·종범(신아일보 스마트미디어부장) 씨 모친상 = 30일, 인천 청와라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32-571-1321

▲이상각 씨 별세, 최정란·정아·중락(MBN 워싱턴특파원) 씨 모친상, 전중호(대전 광동한의원 원장)·백창욱(대전 동건운수 대표) 씨 장모상, 안테나(서울 세검정초등학교 교사) 씨 시모상 = 30일,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3일 오전 8시, 042-220-9980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구교수·정치학

아베 정권 이전의 자민당 온건파 정권 때는 그들도 투트랙 정책이었다.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았고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도록 서로 관리했다. 그러나 일본 정권이 극우 정권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정책도 바뀌었다. 현재 일본 정권은 역사 문제와 현실 문제를 외교 문제까지 연결하는 연계전략을 쓰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이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공동기 자회견을 무산시켰다. 그런데 그 후 일본 자민당이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대항 조치를 검토할 팀을 별도로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는 현안이 많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기타 역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런데 한국 측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민당의 우파들이다. 이번에도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김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난한 것이다.

자민당 안에는 외교부회뿐만 아니라 부회라는 것이 23개 정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외무성과 정책적으로 1대1로 대응하는 부서가 외교부회이고 내무성과는 내무부회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까지는 자민당 부회보다 정부의 힘이 강했다. 그때는 자민당의 여러 부회가 정책을 제시해도 정부 측은 참고할 정도에 그쳤는데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에서는 그런 관계가 역전됐다. 현재는 부회에서 어떤 정책적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정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아베 정권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 영토주권전시

관이라는 곳을 2021년 6월 도쿄에 오픈했다. 이 전시관의 목적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데 있다. 이것이 아베 정권 때부터의 일본의 계획이다. 일본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경찰청장이 독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잡아서 표면화시켰다.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현재 최악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간 이후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그때 일본 쪽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0% 정도였는데 갑자기 30% 선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그때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19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수출 규제를 통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한일관계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존재해서 투트랙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정책이다. 독도 문제 같은 것은 당장 해결이 어려우니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분쟁지역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차

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로 너무 싸우면 진짜 분쟁지역이 돼서 한국에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 지배라는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일본이 반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한 접시 위에 올려 놓고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포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현재 한일 간 현안이란 무엇 하나를 봐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괄 타결 방식은 옛날의 방식이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고도한 외교기술이 필요해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

현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육일기 문제, 수출규제문제,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 문제,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나 하나 한국 측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문제다. 반대로 일본은 모두 일본 측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 이전의 자민당 온건파 정권 때는 그들도 투트랙 정책이었다.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았고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도록 서로 관리했다. 그러나 일본 정권이 극우 정권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정책도 바뀌었다. 현재 일본 정권은 역사 문제와 현실 문제를 외교 문제까지 연결하는 연계전략을 쓰고 있다. 무조건 한국이 나쁘다고 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이 옳다는 것을 호소해 나가는 전략인데 이것을 특히 아베 정권이 7년 8개월을 해왔고 스가 정권도 이어받았다. 기시다 현 총리는 그 정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외교 파트에 강경파가 그대로 남아 있어 못하는 것이다. 요세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뉴스가 많지 않다. 기시다는 비틀기파라고 해도 힘이 없다.

일본에서는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우파는 남북이 평화공존, 나아가서 통일된다면 일본에 불리하다는 얘기를 해왔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고 일본을 완전히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이익이고 대립하는 남북에 따라따로 영향력을 미쳐서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본 우파정권의 전략이다. 결국 일본의 전략을 잘 읽어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전 국회입법조사관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떡튀' 막으려면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금어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32억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 원이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 중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1400여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용 중 본인은 150만 원만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셀티션'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실렸는데 해당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유된 영상을 재공유한 것으로, 제작자는 댓글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만 나왔다. 여기에 민간보험의 '실손 의료보험'까지 받아서 본인은 15만 원만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모든 외국인이 동영상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시점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및 보험사의 민간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 주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인정한다. 민간보험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은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체류기간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질병·상해)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은 본국(외국)의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서 적절한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과한다. 또한 이전 국내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병력) 추적의 어려움도 있다.

민간보험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험 가입 통계 없이 보험 인수를 하는 실정이라서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 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보험 사고로 인한 외국인의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금 손해사

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려된다.

이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별도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국내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및 국내 가입자의 역할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시 본국(외국)의 보험 가입 이력과 병력에 대한 의무기록 공유, 역학조사 추적기록에 대한 정보 교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체류 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떡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디 앨런 명언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미국 영화감독 겸 각본가, 배우, 코미디언. 원래 이름은 앨런 스투어트 코니그스버그. 유대인이다. 미투 운동이 영화계로 번지며 그도 퇴출리스트에 올랐다. 대표작은 '맨해튼', '애니홀', '미드나잇 인 파리' 등. 작품이 비평가들에게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는 편이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5~.

☆ 고사성어 / 포薪구화(抱薪救火)
'불 끄려 싶을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해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더 크게 하거나 조장한다는 뜻. 사기(史記) 위세가(魏世家) 편에 나온다. 진(秦)나라가 위(魏)나라를 침공했다. 위나라 장수 단간자(段干子)가 왕에게 난양(南陽)을 넘기고 강화를 맺을 것을 진언하자 전술가 소대(蘇代)가 간언한 말에서 유래했다. "진나라에 땅을 할양하는 것은 '떨나무를 안고 불을 끄려는 것[抱薪救火]'과 같아, 떨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불은 꺼지지 않듯이, 땅을 할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왕은 소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는 진에 멸망했다.

☆ 시사상식/캐리트레이드(carry trade)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자금을 빌린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오르면 값을 돈이 늘어나거나, 투자하는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질 때에는 환전 후 손실을 볼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금리가 낮고 통화가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국가에서 많이 일어난다.

☆ 고운 우리말 / 디딤돌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노우리 / 산업부



사과나무 심는 것조차 망설이는 정부

"당장 사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과나무만 심으면 되나요? 토양이 황폐해졌다면 열매가 열릴 수 있겠어요? 가지도 쏘아주고, 비료도 줘야죠."

한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예를 들어 'K-반도체 벨트' 전략 중 일 부인 인력 양성 정책은 2년 안에 학사급,

석·박사급, 실무인력 등 총 48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정책에 따라 양성되는 학·석사급 인력이 육성되기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현장에 투입될 고급 인력을 원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져 있다.

세계 혜택이나 설비 투자 지원 정책도 이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 도입,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유인 증대, 집

단연구 체제 마련 등 추가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일명 반도체 특별법)은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8개월 가까이 표류 중이다.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선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일부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

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010년대 인력 양성과 기술 고도화 두 가지 과제를 기업에 전적으로 맡길 정부의 선택은 반도체 업계에서 뼈 아픈 패착으로 기억된다. 그나마도 이 시기 전력을 다해 기술을 발전시켜 온 기업들 덕에 국내 반도체 산업은 잘 커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성장 문법이 들어맞진 어렵다. 기업과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만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we1228@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2)799-2669	02)799-2663	02)799-2612	02)799-6741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02)799-2648	02)799-2665	02)799-2637	02)799-2644	대표전화 (02)799-2600
02)799-2646	02)799-2641	02)799-2643	02)799-6745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특하면 말 바꾸는 정부, 어떻게 민나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예상했던 일이 다.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나왔던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것을 보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할 때도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렸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일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도 한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수도권에는 1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 같이 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면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출근이 가능하다. 학교도 간다.

팬데믹 공포는 다시 커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5배 이상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오미크론'이 출현했다. 유럽 각국은 재봉쇄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만 느긋하다. 위드 코로나 2단계를 유보하는 대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방역대책이란 것도 없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사적 모임 완화, 전면 등교 등 많은 것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2단계 시행 유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특별방역대책은 방역 강화보다 백신 접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중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5~12세의 백신 접종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전 단계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정부는 전면등교를 유지했다.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하루 평균 414명의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는 데도 말이다. 정부는 전면등교를 유지하는 대신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이상하다. 9월까지만 해도 이득이 크지 않아 12~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접종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다. 애초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20%에 머문 것은 접종 방식이 불편해서가 아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인과 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정부를 학부모들이 믿지 못해서다.

불신이 팽배한데 이제는 5~12세의 백신 접종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학원 등

청소년 백신(방역) 패스도 곧 도입할 기세다.

현재 12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모두 학교에 간다. 많게는 한 반에 28~30명씩 다다다다 붙어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는다. 확진자가 나와도 같은 반이 아니면 정상 등교를 한다. 정부는 학력 격차가 점차 커지고 돌봄 공백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면등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학력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교육 시장이 있는 한 학력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더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이다.

방법은 정부가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컨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인다든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전면 등교를 고집하는 것보다 낫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욱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국민은 정부에 기밀 수밖에 없다.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마주하는 데 있어 잦은 말 바꾸기와 안일한 태도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js62@

사설

2금융권 가계대출 중단, 갈 곳 없는 저신용 서민

단위농협과 수협에 이어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들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2금융권의 돈줄이 막히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피해가 커질 우려도 높아진다.

신협이 지난달 3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다만 실수요의 전세자금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도 29일부터 주택담보와 분양주택 입주 잔금 등의 대출을 무기한 중단했다. 앞서 단위농협과 수협이 각각 8월과 10월부터 주택담보 등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을 옥죄자,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된 '풍선효과'로 인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209조2700억 원)은 작년말(194조5500억 원)보다 7.56%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총량억제가이드라인인 5~6% 수준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몰려 10월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낮아졌다. 비정상적 상황이다.

그동안 대출을 막았던 시중은행들은 최근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전세대출 등을 풀고 일부 신용대출도 재개

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예대(預貸) 마진을 키워 폭리를 취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출된 영향이 크다.

은행권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들의 대출 송풍은 트였지만, 중·저신용자들의 갈 곳 없어진 상황이 문제다. 2금융권 돈줄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조여진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카드사 등의 대출한도도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금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미 시중은행들의 마구잡이식 대출금리 인상에 2금융권의 대출 중단까지 덮쳐지면서, 정작 돈이 다급한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들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몰려 개인파산 등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당장 절실하다.

노트북을 열며

박선현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늘 한산했고, 산책길 '쌍쌍카'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중 '정인이 사건'을 접했다.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때였다. 관련 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본 뒤 며칠간 잠을 설쳤다. 두 아이를 돌봐왔던 이후 소식들은 애써 외면했다. 관련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미안함을 덮었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안 계모 사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등 아연실색할 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수법은 잔인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890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3명의 아이들이 하눌로 떠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87.3%)에서 벌어졌다. 신체(12.3%), 정서(28.3%)를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몹쓸 짓(성 학대 2.2%)까지 했다.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율)은 4%에 불과하다. 10%가 넘는 미국, 호주와 비교하면 참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가장 낮다.

사람들은 체벌을 훈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관심이 문제다. 실제 학교 선생님, 가정폭력 보호시설 상담사 등 신고의 무자의 신고 비율은 2016년 32%에서 지난해 28.2%로 줄었다. 감시 공백을 메워 주던 이웃 등 비신고자들의 도움도 점점 줄고 있다. 어른들이 시선을 거둔 사이 아이들을 구한 건 '그들 자신(2016년 9%→2020년 14.2%)'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하지만 지금 마을 대문은 굳게 닫혀 있다. 아이들의 '살려 달라'는 울음소리는 허공에 묻히고 있다. 너무 많은 아이가 희생됐다. 전염병만 닦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어두운 낮빛, 반복되는 울음소리는 아이들이 보내는 간절한 'SOS'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 과거, 전염을 핑계 삼아 고개 돌렸던 나를 반성한다.

sunhyun@

진료실 풍경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 흔히 듣는 질문이 '아이가 항문을 가려워하는데 구충제를 먹어야 하나'는 것이다. 대변이나 항문에 찌뭉라대는 벌레가 보인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기생충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설명을 해도 못 미더워 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우리가 위생관념도 최고이고 인분을 주는 농사도 진즉에 사라졌으나 생각만은 아직도 40~50년 전 학교에서 단체로 채변검사를 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문화는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데 비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습관이나 제도 등 비물질적 문화는 그렇지 못한 현상을 문화지체(cultural lag)라 한다. 자동차는 첨단을 달리는 반면 교통문화나 제도는 후진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쉬운 예라 하겠다.

영화 '모가디슈'에서 북한 측이 보낸 테러범들에 의해 공항 도로에서 한국 대사관 차량이 테러를 당한다.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외교관들은 대사관에 도착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현직인 운전사는 이미에 부상을 입었다. 이때 대사 부인이 운전사에게 무와 양파를 건네며 집에 가 갈아서

문화지체

상처에 붙이라고 한다. 대사 부인을 이해한다. 약은 없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채소를 건네는 마음은.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하자. 그래서 무를 붙인다면?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소독약과 거즈와 상처연고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 친구가 양파가 염증에 좋더라 민간요법을 카톡에 올렸다. 상처가 나면 양파를 붙이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꺼풀에 양파를 올려놓고, 종이 염이 있으면 양파 즙을 짜 귀에 넣고 등등이다. 의사로서 모른 채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수천 년을 내려오는 민간요법이라는 댓글을 단다. 등산을 가서 벌에 쏘이면 침을 발라야 하지만 야파트 환관에서 쏘이면 약을 바를 일이다.

아무쭙으로 의료 분야에는 문화지체 현상이 얼른 사라져 제대로 된 치료를 스마트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가 지나 철도 들고 여러모로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야내는 지금도 30년 전의 실수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또한 문화지체라고 주장하고 싶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SAMSUNG

BESPOKE 키친과 함께 신선하게 살여리랏다

전통 속에서 오히려
새로움을 발견하는 당신의 취향처럼
눈에도 내 입맛에도 신선하게.

다양한 취향이 현실이 되는
비스포크 키친을 만나보세요.

BESPOKE 김치냉장고 | 냉고도어 | 식기세척기 | 쿠키 압착선



*이미지는 연출된 예시로 실사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전을 나답게.

JOIN THE **BESPOKE**